



미자립교회 성장을 위한 정책자료집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선교국

I. 들어가는 말 6

II. 미자립교회 정의와 현황

1. 미자립교회 정의	6
2. 미자립교회 현황	7

III. 미자립교회 성장 및 지원 사례

1. 성장 사례

1) 관계중심의 다채로운 감동 목회 - 승리교회	10
2) 협력과 후원으로 세운 도심지 목회 - 호산나교회	17
3) 한 영혼과 가정을 돌보는 상담 목회 - 석남은혜교회	21
4) 매일의 섬김으로 다가가는 전도 목회 - 안산나눔교회	28
5) 전도와 섬김의 노인 목회 - 아름다운교회	35
6) 지역아동센터와 도서관을 운영하는 복지 목회 - 평강의교회	42
7)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 정주 목회 - 구산교회	46
8) 선택과 집중을 거친 단순한 목회 - 은혜와사랑의교회	56
9) 어려울수록 기본을 붙드는 기도 목회 - 로댐교회	62

2. 지원 사례

1) 목회자 지원 사례	69
2) 교회 지원 사례	73
3) 통합적 지원 사례	77

IV. 정책적 접근 -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1. 교회는 선교 공동체이다	80
2. 선교적 교회의 핵심요소 - 7기둥	83

V. 나가는 말 - 미자립교회 문제해결을 위한 제언

1.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길 가는 목회	90
2. 분명한 비전과 사명을 가진 교회	91
3.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교단	91

박영근 목사
선교국 총무 직무대리



전국의 목회자와 동역자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결코 쉽지 않았던 2017년 기도와 눈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심을 먼저 감사드리며, 2018년 한 해도 사역의 현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선교국에서 조사한 2017년도 통계자료에 의하면 미자립교회가 국내 감리교회 전체의 47%에 달하며 그 숫자는 2,920교회입니다. 그 동안 감리회 본부, 연회, 지방회, 개체교회 등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숫자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으며, 여전히 이 문제는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게 될 것이며 그 해결책 역시 지금으로서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문제가 미자립교회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닌 감리교회 공동체 전체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과제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발간한 정책자료집에는 미자립교회의 다양한 성장 사례와 지원정책들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좋은 사례와 모범 정책들을 발굴하면서 제시하려고 합니다. 이 책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좋은 사례와 정책을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미자립교회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생각하여 함께 노력해 나간다면 언젠가는 좋은 결실이 맺힐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순히 교인 수와 결산이 증가해서 미자립을 벗어나는 표면적인 모습이 아니라, 작지만 건강하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진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료집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미자립교회 정책위원 및 집필자 여러분들, 그리고 자료를 제공해 주신 많은 교회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I. 들어가는 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의 자아정체성은 분명 자립이다. 그러나 교회는 자립과 미자립으로 구분된다. 자립과 미자립 구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근거를 찾아볼 수는 없다. 지원을 위한 행정 편의상 경상비 결산 액을 기준으로 자립과 미자립으로 구분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자료집에서는 먼저 규정되어 있는 미자립교회 현황을 정리하고, 교회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여 모든 교회가 어떤 길에 서야 할지를 제시하면서 총체적인 미자립교회 성장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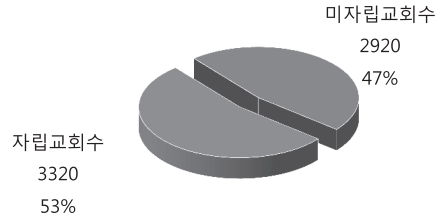
II. 미자립교회 정의와 현황

1. 미자립교회 정의

〈미자립교회 대책 및 교회실태 조사위원회〉 규정에서 ‘전년도 경상비 결산을 기준하여 그 기준을 정하며’ 총회 실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006년부터 2,500만 원 이하의 교회를 미자립교회로 규정하다가, 2012년 총실위에서 3,500만 원을 기준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따라서 본 자료집에서는 전년도 경상비 결산 3,500만 원 이하의 교회를 미자립교회로 정의하여 정리하였다.

2. 미자립교회 현황

자립교회수	3,320
미자립교회수	2,9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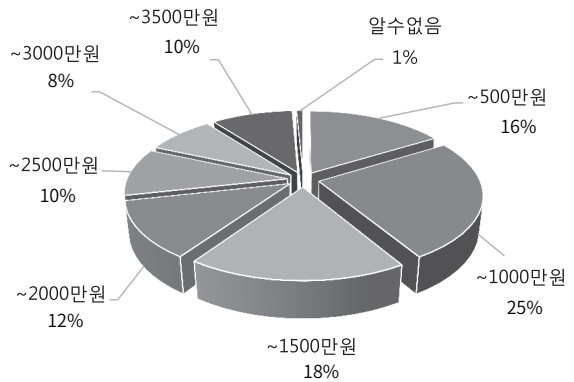


■ 연회별 미자립 교회 수

연회	전국	서울	서울남	중부	경기	중앙	동부	충북	남부	충청	삼남	호남선교
교회	6,240	397	408	1,079	792	560	671	413	596	647	408	269
미자립수	2,920	150	186	475	403	251	276	231	320	241	222	165
백분율	47	37.7	45.5	44	50.8	44.8	41.1	55.9	53.6	37.2	54.4	6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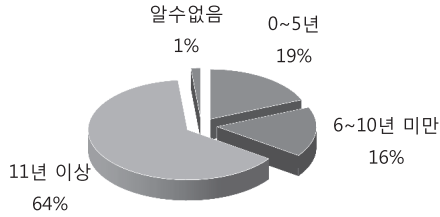
■ 경상비 대비 미자립 교회 수

경상비	교회수
0~500만원 미만	475
500~1,000만원 미만	733
1,000~1,500만원 미만	533
1,500~2,000만원 미만	348
2,000~2,500만원 미만	293
2,500~3,000만원 미만	235
3,000~3,500만원 이하	281
알 수 없음	22
합계	2,9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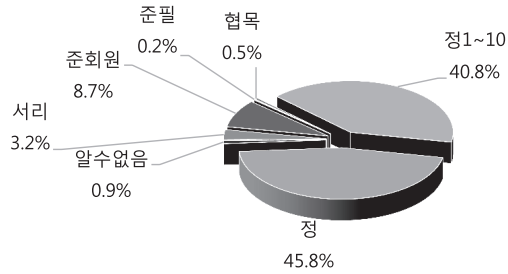
■ 교회 창립에 따른 구분

창립년수	교회수
0~5년	545
6~10년 미만	470
11년 이상	1,860
알수없음	45
계	2,9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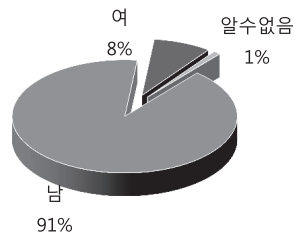
■ 담임자 목회 연한에 따른 미자립 수

연한	교회수
서리	92
준회원	255
준필	6
협목	14
정1~10	1,191
정	1,336
알수없음	26
합계	2,920



■ 성별에 따른 미자립 수

성별	교회수
남	2,647
여	243
알수없음	30
합계	2,920



■ 국내교회 경상비 결산구분에 따른 교회현황

3,500만원 이하

연회	전국	서울	서울남	중부	경기	중앙	동부	충북	남부	충청	삼남	호남선교
전체	6240	397	408	1079	792	560	671	413	596	647	408	269
교회수	2920	150	186	475	403	251	276	231	320	241	222	165
백분율	47	37.7	45.5	44	50.8	44.8	41.1	55.9	53.6	37.2	54.4	61.3

3,500만원 초과~5,000만원 미만

연회	전국	서울	서울남	중부	경기	중앙	동부	충북	남부	충청	삼남	호남선교
전체	6240	397	408	1079	792	560	671	413	596	647	408	269
교회수	682	31	49	97	83	74	83	41	77	81	45	19
백분율	10.9	7.8	12	8.9	10.4	13.2	12.3	9.9	12.9	12.5	11	7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연회	전국	서울	서울남	중부	경기	중앙	동부	충북	남부	충청	삼남	호남선교
전체	6240	397	408	1079	792	560	671	413	596	647	408	269
교회수	1100	40	52	205	133	116	144	60	89	163	59	38
백분율	17.6	10	12.7	18.9	16.7	20.7	21.4	14.5	14.9	15.1	14.4	14.1

1억원 이상~5억원 미만

연회	전국	서울	서울남	중부	경기	중앙	동부	충북	남부	충청	삼남	호남선교
전체	6240	397	408	1079	792	560	671	413	596	647	408	269
교회수	1211	112	72	229	135	98	144	73	90	139	74	44
백분율	19.4	28.2	17.6	21.2	17	17.5	21.4	17.6	15.1	21.4	18.1	16.3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

연회	전국	서울	서울남	중부	경기	중앙	동부	충북	남부	충청	삼남	호남선교
전체	6240	397	408	1079	792	560	671	413	596	647	408	269
교회수	196	42	27	39	20	13	14	6	10	17	6	2
백분율	3.1	10.5	6.6	3.6	2.5	2.3	2	1.4	1.6	2.6	1.4	0.7

10억원 이상

연회	전국	서울	서울남	중부	경기	중앙	동부	충북	남부	충청	삼남	호남선교
전체	6240	397	408	1079	792	560	671	413	596	647	408	269
교회수	134	22	22	34	18	8	10	2	10	6	2	1
백분율	2.1	5.5	5.3	3.1	2.2	1.4	1.49	0.4	1.6	0.9	0.4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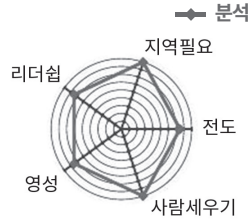
III. 미자립교회 성장 및 지원 사례

1. 성장 사례

사례 1

관계중심의 다채로운 감동 목회 강소교회를 꿈꾸는 승리교회

- 박영진 목사(서울연회 강북지방 승리교회)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보다는 작지만 강한 교회, 성장보다는 성숙한 강소교회를 지향한다.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에 위치하고 있는 교회에 2010년 현 담임자가 부임하였다. 당시 개척 후 10여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열악한 시설과 소수의 교인이 있던 미자립교회였고, 교회 시설이 매우 불편하고 열악하였다.

기도 중에 교회환경개선 계획을 성도와 함께 나누었다. 결국 10여 일간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새로운 예배실에서 2년을 사역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은혜를 교인들과 함께 누리게 되었고, 부흥으로 2km 떨어진 수유동으로 예배당을 이전하였다. 7년 동안 부흥한 승리교회의 10가지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예배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다워야 한다.’ 작은 교회는 새로운 시도가 용의하고, 결정이 단순하며, 변화가 쉽다. 우리 교회는 이 점을 주목하여 예배에 다양한 시도들을 하였다. 2015년에는 ‘사계절 콘서트’를 진행하여 봄, 여름, 가

을, 겨울 각 계절 느낌에 알맞은 가스펠뮤지션을 초대해 주일 오전 예배를 콘서트로 진행했다. ‘주일 예배는 꼭 이렇게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묶이지 않았다.

월 단위 예배는, 첫째 주일은 성찬주일 예배, 둘째와 셋째 주일은 말씀 중심의 예배, 넷째 주일은 찬양 예배로 구성하여 예배의 다양함을 추구했다. 부활절,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등 각 절기를 적극 활용하여 축제적인 예배가 되도록 각 절기의 특성을 살려 색다른 예배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 그래서 절기 예배 및 다양한 예배가 새 가족 초대 기회가 되도록 하고 있다.

2) 공간

새로운 공간을 찾을 때 예배 장소와 친교 및 식사 공간이 구별된 두 개 층으로 분리된 공간을 중심으로 이사할 곳을 물색하였다. 기존 장로교회가 사용하던 공간 두 층을 임대하였는데, 오랜 기간 몇 차례 교회들이 바뀌며 사용하던 공간이어서 상황이 매우 열악했지만, 승리교회의 목회를 담아내기 위해 전면 철거 후 리모델링을 하였다.

특별히 리모델링 과정에서 중점을 둔 사항은,

① 동선을 고려하였다. 정수기, 세면대(화장실 외), 페이퍼 타올, 휴지통, 손세정제, 티슈, 물티슈 등 생활 편의용품과 시설이 적절하게 비치되도록 하였다.

② 아이들을 위한 배려 용품을 준비했다. 2012년 당시 교회에는 아기들이 거의 없었지만 승리교회의 목회 타겟(target)에 대한 선편적 마음으로 시도하였다. 만약에 승리교회가 추구하고 지향하는 목회가 장년 혹은 노년층이었다면, 황토방이나, 안마의자를 구비했을 것이다.

③ 세련된 공간을 추구했다. ‘홈인테리어’가 보편화된 요즘, 교회가 최소한 그런 노력을 했음을 방문자들에게 알리고 싶었다.

3) 사역

① 감동사역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사역, 큰 교회에서 할 수 없는 사역,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더 돋보일 수 있는 사역을 생각했다. 모든 성도를 가족으로 생각하는 마음에서 시작했다.

교회에 젊은 부부들이 오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오게 되었는데, 한 가족으로서 아이들의 돌잔치를 교회에서 해 주었다. 준비하고 축하하는 승리교회 성도는 물론, 그 돌잔치에 초대된(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분들 포함) 양가의 어른들이나 친지들까지 감동을 받는 모습이 좋아 사역으로 정착하게 했다.

돌잔치를 시작으로 해서, 어르신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칠순, 팔순, 구순 잔치'를 교회에서 해 드리기로 결정하고, 이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역을 통해 믿지 않는 자녀들까지 교회에 발걸음을 하게 되었다. 50~60대 성도도 자신의 고회연을 기대하고 있다. 이 감동이 전도의 소재가 되고 있기도 하다.

② 목적사역

교회가 이사하며 리모델링할 때, 처음부터 사진전 등을 계획하여 사진레일을 설치하고 많은 수의 작품은 아니더라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사진전을 열고 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어린이 돕기' 등의 목적을 가지고 사진전을 열면 작품 중간에 모금함을 준비하고, 일정기간 전시회가 끝나면 전액 그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 작품전시 기간에는 관심 있는 지인들을 초대해서 함께 사역에 동참하기도 한다. 또한 해외선교지에 물품보내기 운동(러브박스), 아이와 함께 영화보기 등이 특별한 목적을 위한 사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

③ 친교사역

2016년 봄, ‘전교인 일본여행 - 꽃보다 승리’를 진행했다. 성지순례나 해외선교도 물론 귀하고 의미가 있지만, 공동체를 세워감에 있어 추억 만들기를 빼놓을 수 없다는 생각에 전교인 해외여행을 기획하였다. 그 결과 평일 해외여행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전교인의 80%정도가 참여하는 기록을 세웠다.

이 사역은 성도에게는 큰 자부심이 되었고 함께한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큰 자산이 되었다. 그 외에도 고구마 수확체험, 포도밭 나들이, 봄·가을 소풍 등 다채로운 친교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4) 관계전도

우리 교회는 소위 ‘가나안교인’들을 만나고, 상담하고, 교회에 초대하고 치유하여 정착시키는 교회로 방향을 설정하였다.

공동체를 통하여 성도가 진짜 빛과 소금이 되면 애쓰지 않아도 빛이 나고, 맛이 날 것을 확신하면서 공동체 구축에 전력한다. 그 결과 삶에 지친 영혼들이 찾는 교회가 되었다.

노방전도를 하지 않는 만큼 노방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교회에 방문하는 성도를 더욱 열심히 섬기기로 하였다. 그래서 새 가족 환영팀을 세워 교회를 방문하는 분들을 어떻게 환영하고 섬길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을 하였고, 그 교육을 받은 새 가족 환영팀은 교회를 방문한 한 분, 한 분이 교회 안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영접, 예배, 식사, 티타임 등을 섬기며 따뜻함으로 섬기고 있다.

새 가족 환영팀은 새 가족(방문자)을 일대일로 섬기되, 교회에서의 하루를 온전히 섬긴다. 이러한 관계전도와 사역을 통해 우리 교회는 방문자가 정착하여 성도가 되도록 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고 실제로 높은 정착률을 보이고 있다.

5) 젊은 교회

권위와 전통보다는 젊음과 새로움을 추구한다. 예를 들어 ‘번개 모임’이 있다. 매년 4회 5-Day 특별새벽기도회로 모이고 있는데, 이 특별새벽기도회 종료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 가까운 교외로 나가 식사하고 돌아온 다든지, 교회 단체 카톡방을 활용해 시간과 장소를 공지하고 가능한 교우들이 만나 식사를 하는 등 직관적인 반응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젊은 세대의 감각을 추구한다.

또한 많은 사역(가을 소풍팀, 고구마 체험팀, 일본여행 준비팀, 말씀학교 준비팀)을 하고 있는데, 각 사역마다 사역팀을 세우고 그 사역팀을 섬길 성도를 모집하여 그 팀이 사역을 진행하도록 격려하며, 목회팀이 돕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역팀 운영이 주는 강점은 1년 단위의 헌신에 대한 부담을 덜고, 상황에 따라 또 헌신의 마음을 주실 때 즉각 반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데에 있다.

6) 이웃

연 2회 ‘이웃초청식사’ 사역을 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중북, 하반기에는 성탄절 시즌에 실시하고 있는데, 대상은 교회와 같은 건물 그리고 주변 상가를 임대하고 있는 입주자들이다. 이 사역은 일 년에 한두 번이라도 이웃끼리 얼굴을 마주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과 교회가 사역하면서 혹시라도 불편하게 한 점(주차, 소음 등)이 있다면 양해를 구하자는 취지로 시작하였다. 하지만 점점 사역이 커져 이제는 구청 환경미화원 분들도 초대하고, 주민자치센터 직원들에게 선물을 전하는 등 구체적으로 이웃들과 함께 소통하는 사역으로 발전하였다.

이 사역으로 주변 상가에 임대해 있는 입주자들이 자신들 손님에게 우리 교회에 대해 좋게 말씀해 주시기 시작했다. 물론 이것이 구체적인 전도의 열매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 성도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7) 목회팀

작은 교회일수록 목회팀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하여 교인 총원 20명이 될 무렵에도 이미 3명의 목회팀이 있었고, 현재는 4명이 목회팀으로 섬기고 있다. 물론 교회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사역자를 세우는 일 또한 ‘선교’라고 생각하며 접근하면 교회는 부담이 아니라 힘을 얻게 된다. 또한 세워진 사역자를 통해 교회는 다채로운 사역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질도 훨씬 높아지게 되었다.

8) 선교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선교한다. 선교사를 파송할 정도가 아직 안 되니 무조건 선교하는 것이다. 선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교하면 교회 안에 주님의 일에 동참하려는 영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선교에 동참하고 있다. 청년, 학생을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선교팀을 꾸려 2012년 필리핀 선교를 시작으로 영월지역 국내선교 등 직접 가는 선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전교인 선교 프로그램으로는 ‘1인 1선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선교, 해외선교, 장학선교’ 중 모든 성도(아이들까지)가 자신이 헌신하고 싶은 목적에 따라 한 가지를 선택하여 반드시 선교에 동참하도록 한다. 매해 12월 중 ‘1인 1선교 작성주일’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팀장을 세워 담임목사의 지도하에 자체적으로 선교하도록 하고 있다.

2017년 현재 국내선교는 비전교회를 섬기는 사역을, 해외선교는 말라위에 교실 및 화장실 건축, 차량구입지원을, 장학선교는 우리 교회 학생, 청년 및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으로 선교하고 있다.

9) 사역

행정조직(장로, 권사, 집사)과 더불어 사역 조직을 가지고 있다. 사역팀은 '1인 1선교'와 더불어 '1인 1사역'운동을 전개하는데, 매해 연말이 되면 사역박람회를 통해 모든 성도가 새해 본인이 헌신할 사역팀에 지원한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 자기가 선택한 사역팀에 애정을 갖게 되고, 한 해 동안 주어진 사명의 자리를 지켜내려고 노력한다. 사역팀장은 사역박람회 전에 미리 담임목사가 세우고, 몇 차례 준비 모임을 통해 사역팀장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교육과 사역박람회 운영에 대해 교육한다. 2017년 현재 사역팀은 호산나성가대, 하늘꿈찬양팀, 영상팀, 새가족환영팀, 웰컴팀, 생일축하팀, 광고팀, 푸드마켓팀, 승리플러스팀 등이 있다.

10) 양육

개인 맞춤형 양육으로 언제든지 시간이 될 때, 인원구성과 양육기간을 만들어 오면 양육이 시작된다. 필요하면 담임목사가 교우들이 모여 있는 지역으로 방문하여 양육하기도 한다. 또한 전교인 양육은 집중말씀학교, 봄 영성여행 등의 시간을 통해 말씀이 왕성한 교회를 꿈꾸며 양육에 집중하고 있다.

위에 열거한 것처럼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처럼 여러 지역에 걸친 다양한 사역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도 각자의 삶의 자리가 교회 본질(예배 및 관계 전도 : 케리그마, 교육 : 디다케, 봉사 : 디아코니아, 교제 : 코이노니아)의 회복을 통해 마르지 않는 샘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러 사역들이 어떤 대형 교회에 비하면 그리 세련되거나 멋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 성도는 예배와 교육, 교제를 통해 얻은 은혜와 기쁨을 지금도 고스란히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고 있다.

사례 2

협력과 후원으로 세운 도심지 목회 감사로 돌아본 15년 목회

- 김성운 목사(서울남연회 강동지방 호산나교회)



2002년 7월 30일에 현 담임목사가 개척하여 지금까지 15년 동안 섬기고 있다. 이 기간에 개척 교회를 하게 된 것을 후회하지는 않았지만 서울 한복판 도심지에서 목회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언론을 통해 치매노인과 자살노인문제들을 접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던 차에, 실버처치의 사례를 보며 감동이 되었다. 이어 시작할 때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실버 힐링 학교 안내 스티커를 돌리며 전도했다. 그런데 8월까지 10명을 넘기지 못하여 비상수단으로 화요일 저녁에 1시간 기도회를 가졌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9월 첫 주에 50명이 넘기 시작했다. 현재 실버 힐링 학교에 60명 이상이 모이고 있다. 힐링 학교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결석하지 않던 두 분이 힐링 학교에 다니면서 은혜를 받았던지 몇 분을 전도하셨고, 이분들로부터 전도 받아 오신 분들이 또 다른 이들을 전도 하여 60명 이상 출석하고 재적인원도 90명 이상이 된다.

호산나 실버 힐링 학교는 매주 목요일 오후 1시에 시작하여 1시간 동안 진행된다. 교가(찬송: 승리는 내 것일세)를 암송케 하고, 또한 찬송도 하며 크게 박수도 치고, 간증하는 시간들이 있다. 풍납동에서 오신 한 분은 지팡이를 짚고 다니셨는데, 몇 주 나오시더니 지팡이 없이 다니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건강하게 살다가 조용히 천국에 갑시다.”, “너무 오래 살면 후손들에게

부담을 줍니다.”, “그런데 105세까지만 삽시다.”는 멘트에 어르신 대부분이 너무 오래 산다 하시면서도 까르르 웃으신다. 기뻐하며 웃으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목회자도 힐링을 받고 있다.

강동구 성내동(3동)과 길동으로 –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부임 당시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 약 40평에 보증금 2,800만 원, 월세 50만 원이었다. 그리고 부임한 지 몇 달이 안 되었음에도 건물주가 바뀌어 100만 원의 월세를 내야 했다. 돈 문제, 월세 문제가 큰 기도 제물이었다. 다른 구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도 않은 강동구에 유별나게 대형 교회들이 많다. 이러다 보니 힘껏 전도해서 교회에 성도가 어느 정도 채워지나 싶을 때면 여지 없이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는 큰 교회에서 배워야 한다며 미련 없이 교회를 떠나가 버린 성도들의 가정들을 보았다. 정말 당혹스럽고, 주님께 섭섭하기도 했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그 대형 교회들도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원망할 수가 없었다.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함께한 몇 명의 성도가 있었지만 교회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때라 월세가 여덟 달이나 밀리기도 했다. 이러다 보니 건물주 얼굴을 대하기가 민망해 피하는 신세가 되기도 했다. 이럴 때에, 강동지방 대명교회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개척선교회를 알게 되어 3~4년 동안 8천만 원을 후원 받았다. 그 지원금은 호산나교회가 위기에서 벗어나는 기회가 되었고, 개척선교회로부터 받은 지원금 8천만 원을 다 갚을 수 있었다.

그런데 바로 이 때에 예배 처소를 옮겨야 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평소 성도와 함께 100평을 달라고 늘 하나님께 기도했던 생각이 났다. 차를 타고 가다가 길동에 기독교 백화점 전화번호가 눈에 들어왔다. 이 백화점이 새 건물로 이전해 갔기 때문에 건물의 세가 얼마나 되나 싶어서 전화를 걸어 문의했더니, 백화점 소유(지하)의 바로 옆 장소 100평(다른 교회에서 썼던 장소)을 보증금 1억 원, 월세 200만 원에 내놓았다는 것이다.

보증금 1억 원, 월세 100만 원에 그저 믿음으로 계약을 하고 기도하는 중에 교회에서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마 25:16)라는 말씀이 눈에 자꾸 들어왔다. ‘장사하여’라는 이 말씀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세상에 가서 장사하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장사하여’라는 말씀이 자꾸 마음에 끌리었다. 이때 여선교회에서는 건축헌금을 한다는 목적으로 낙지 젓갈 사업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다. 그래서 장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임원들과 모여서 얘기를 나누고 이 사업을 여선교회가 주관하여 하기로 결정했다.

장사라 해도 목회자에게는 몇 명이든 무조건 선물로 드리겠다고 정했다. 이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지방 연합부흥성회 때에 목회자들에게 무조건 무료로 드렸는데, 여선교회가 가져간 100개 이상의 젓갈이 다 팔린 것이다. 그리고 지방 여선교회 회장의 권유로 지방 월례회로 확대되었다. 지방 연합부흥회 강사로 오신 평안의교회 황요한 목사님께 부탁하여 강단에 서게 되었을 때 당시 수익금의 십일조를 가지고 가서 1시간 동안 간증하며 말씀을 전하였다. 차마 낙지 젓갈을 팔아 달라고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교회에서 1,000만 원을 헌금했으니 오라 하여 여선교회에 부탁해서 낙지 젓갈 50개를 선물로 가지고 갔다. 여선교회에서 모은 사업 수익 1,000만 원과 평안의교회에서 주신 1,000만 원을 합하여 잔금을 치렀다.

성내동(2동) 시절

길동에서 4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거의 매일 전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가 잘 안 되었다. 그래서 기도하였다. “주님, 이번에는 전도할 수 있는 곳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작은 건물이라도 매입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8천만 원밖에는 없지만 한 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건물이 5억 원 되면 믿음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당시에는 휴대폰을 통해 인터넷을 빈번하게 사용하지 않을 때인데 우연히 인터넷 기독교 정보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었다. 사이트를 열자마자 첫 교회가 나왔는데 근린시절 8층 중에 4층 100평, 6억 원이 매대로 나와 있는 것이었다. 좋은 장소였지만 당시 사정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라도 한번 해 보자는 심정으로 인터넷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교회 담임목사님께 연락을 했는데, 이번에도 무조건 만나자고 하였다.

그런데 계약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1억 원을 만들어야 했다. 기도 중에 “유지재단에 편입하라”는 감동이 왔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이 건물을 유지재단에 편입할 터이니, 이것을 살 수 있도록 나머지 잔금을 해결해 주시기를 성도와 함께 기도하였다.

주위 목사님들의 도움에 힘입어, 성도는 기도하면서 집회 있을 때마다 만사 일을 제쳐 두고 여선교회에서 하는 사업을 하여서 드디어 1억 원을 만들었다. ‘호산나 실버 힐링 학교’를 이곳 100평 성전에서 하고 있다.

마지막 응답은 이렇게 왔다. “2017년 12월 10일 하늘뜻 장로교회 창립 34주년을 기념하여, 성내동 건물 매각 관련하여 호산나교회로부터 미결제된 부채 총액(5천 3백만 원)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2017년 추수감사절 및 성탄절을 맞이하여, 호산나교회 온 교우가 다시 힘을 내어 주님의 복음 사역에 매진하기를 기원합니다.”

사례 3

한 영혼과 가정을 돌보는 상담 목회 개인과 가정이 회복되는 상담목회로 세워진 교회

- 류순규 목사(중부연회 인천동지방 석남은혜교회)



2012년 1월 29일 인천 서구 석남1동 456번지 4층 55평 건물을 보금중 2,000만 원, 월세 100만 원에 임대하여 석남은혜교회를 설립하였다. 낯설고 이동인구가 없는 가장 어려운 지역에 목회자 가정, 그리고 상담 중인 자매와 아이, 이렇게 개척 교회라는 이름표를 달고 교회가 세워졌다. 개척과 함께 (사)행복한가정연구소를 개소하여 상담목회를 시작하였다.

많은 지인들의 염려와 걱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석남은혜교회가 개척되었다. 개척 당시부터 교회를 알리는 전도지가 없었으나 상담목회를 통하여 석남은혜교회를 알렸다. 5년 동안 상담목회를 통해서 회복되어 본 교회로 돌아간 성도와 한 번이라도 예배를 드린 인원은 200명이 넘으며, 교회에 등록된 인원은 100여 명이 된다. 이들의 대부분은 상담소를 통해서 교회로 들어온 성도이다. 개척 교회가 힘들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이 시대에 아파하는 그들에게 상담목회의 방법으로 다가갔을 때 놀라운 전도의 열매를 맺게 했다.

2006년 신학부에 입학하면서 대학원 졸업 후 개척이 가장 큰 고민이었다. 개척 후에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전도를 해야 하는데, 기존의 전도 방법으로는 교회를 성장시켜 자립하기가 힘든 여건이 많았다. 그래서 기도 중에 응답받은 것이 상담목회였다. 그래서 성서적 배경과 폴 틸리히의

신학적 배경을 가지고 상담목회의 틀을 잡으며 상담사에 대한 준비를 했다. 신학대학원에서는 분석심리학을 전공하고 전문적인 상담목회에 대한 연구와 실전을 쌓았다. 그리하여 성서적 배경과 신학적 배경의 근거로 상담목회의 초석을 잡아 개척을 하였다. 좀 더 전문적인 상담목회를 널리 전하기 위해서 학문적인 배경이 필요하여 Ph.D 과정에 도전하였다.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살전 5:23)고 기록하였다. 즉 우리의 온 영(Pneuma)과 혼(Psyche)과 몸(soma)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이 전일성의 상태로 보전되어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상담목회는 위와 같이 온 영과 혼, 몸이 온전한 구원을 위해 구원을 치유의 관점에서 시작한 목회이다.

그리하여 2017년 1월 22일 교회설립 5주년 기념 및 성전봉헌감사예배를 드렸다. 월세로 있던 곳을 경매로 구입하게 되었고, 교회는 자립을 하였다. 석남은혜교회가 자립교회로 성장한 데에 몇 가지의 성장요인이 있으나, 가장 크게 영향을 준 것은 상담소이다. 상담소를 통해서 지역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되었고, 지금의 석남은혜교회 성도가 되었다.

전도에 대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에 관계전도로 상담목회를 택한 것이다. 그것은 이 시대 관계전도에 가장 필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였고, 상처받은 영혼을 교회로 인도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었다. 상담목회의 가장 큰 장점은 전도의 대상들이 직접 찾아온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전도는 찾아가는 방법이 많았다. 그러나 상담목회는 여러 가지의 원인으로 인해서 상담소를 방문하는 모든 내담자가 전도의 대상이 된다. 그중에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 내담자들도 많았다.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어떻게 상담목회를 통해 자립교회로 성장할 수 있을까? 내담자 한 여성이

치유되었고, 교회에 등록을 하였다. 그 여성으로 인해서 전도가 이루어진 인원이 15명 이상이다. 그녀의 전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상담목회를 통해서 성장한 석남은혜교회 성도에게는 상담목회에서 목회상담으로 전환된다. 상담목회와 목회상담은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차이는 있다. 상담목회는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에 대한 목회라면, 목회상담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대상으로 하는 목회이다. 즉, 상담목회는 상담소를 운영하여 내담자를 상담과 치유를 중점적으로 행하는 것에 비해, 목회상담은 육체적, 정신적인 치유가 된 그들에게 영적인 구원을 중점으로 삼는 목회이다. 석남은혜교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성경공부로 알려진 공동체

석남은혜교회는 설립 후부터 계속 성경공부를 하고 있다. 대표적인 이단으로 개신교회의 문제가 되는 신천지는 성경말씀에 취약한 성도를 잘못된 성경공부로 유혹을 한다. 그러나 놀랍게도 많은 기존의 성도가 신천지의 성경공부에 빠져들어 간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는 것이다.

(1) 수요성경파노라마

매주 수요일 오전에 모인다. 파노라마의 장점은 성경이 재미있다는 것이다. 이해가 되지 않았던 성경이 재미있을 때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입식 성경공부가 아닌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느끼고 깨달았는지를 토론하며, 다른 성도는 또 어떻게 삶에 적용하는지를 서로 의논하며 배우는 성경공부이다.

(2) 매일 성경통독

석남은혜교회는 매일 저녁(화~금요일) 밤에 성경통독을 한다. 매일 3장을

함께 통독하고 말씀을 해석한다. 그러다보니 반복적인 통독방법을 통해서 1년에 세 번 통독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찬송가 1~645장을 처음부터 찬양한다. 찬송가를 매일 1장씩 찬양하는 맛은 얼마나 좋은지, 경험해 본 성도만 아는 기쁨이다. 자연스럽게 성경을 함께 통독하고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을 깨달음은 신앙생활의 최고의 기쁨이다.

(3) 주일 오후 2시 성경공부와 나눔

창세기부터 한 장의 성경을 읽고 1절의 성경을 묵상하고 서로의 깨달음을 토론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오후예배는 성도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도록 회중석에 무선 마이크를 설치하였다. 또한 대예배 설교 때에도 질문과 질의도 받는다.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설교 방식은 일방통로였다. 그러나 석남은혜교회는 양방향설교로 듣고 궁금하면 질의도 가능하다.

석남은혜교회의 성도는 많은 상처를 가지고 모인 공동체이기에, 상처를 받기가 쉽다.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도적인 상처를 주지 않아도 상처를 받는 성도는 아무리 보살핌을 받아도 상처를 받게 된다. 그래서 목장 나눔과 전체 나눔을 통해 자신의 상처를 발표하게 하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나의 상처를 나눔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상처로 남아 있지 않다. 특히 타자에게 호기심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나눔과 공동체를 통해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 석남은혜교회가 하고 있는 나눔의 장점이다.

(4) 화요 성경대학(학기별 운영)

매주 화요일 오후, 일반 대학과 같은 과정으로 3년(6학기)을 공부한다. 과정은 평신도 지도자반이다. 교재는 이영재 목사 저 『바ible웨이』이다. 교재의 장점은 성경의 배경을 지도화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도무지 알 수 없는 성경의 지명과 이스라엘 배경의 나라를 잘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매년 새 학기를 열어 지금은 15명이 과정을 밟고 있다. 화요 성경 대학의 목표는 평신도 성경지도자를 세우는 일이다. 평신도가 평신도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때, 교회는 성숙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찬양과 기도가 넘치는 공동체

그레이스 성가대, 헛세드 찬양단(예배찬양), 임마누엘 찬양단(어르신), 두나미스 중창단(남성), 사론 찬양단(여성), 카리스 중창단(중, 고, 청), 호산나 찬양단(어린이) 등 7개의 찬양단이 있다. 오전예배 때에 헛세드 찬양단을 시작으로 모든 예배에 찬양이 넘친다. 초신자 때에는 찬양을 몰라 찬양하기 힘들어 했지만 지금은 어린아이들도 찬양을 쉽게 따라 부른다. 어린아이들의 찬양 소리는 어른 성도의 심령을 감동시킨다.

3) 매달 첫 주 성만찬예식예배로 주님과 합일을 경험하는 공동체

석남은혜교회의 성만찬예식예배는 협성대학교 신학대학원 예배학 나형석 교수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나형석 교수는 담임목회자가 목사 안수 전까지 2년 4개월 동안 매달 성만찬예식을 집례해 주셨다. 초대교회의 의미를 잘 표현하는 성만찬예식예배로 이제 두 살이 안 된 어린아이도 어른 성도와 함께 분병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룩한 성만찬에 참여한다. 모든 성도가 다른 시간, 다른 공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나 성만찬을 통해 그리스도와 합일된 모습으로 이 시간만큼은 하나가 되는 귀한 예배이다.

4) 건강한 어린이를 양육하는 공동체

매 주일 오후 2시에 어린이들을 위한 아동요리, 아동놀이를 통하여 어린이들의 심리적 안정과 집중력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아동요리

는 아동요리 자격증 소지자 선생님이 진행한다. 집중력 저하 아동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창조성을 키우는 아동요리이다. 아동놀이는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이 진행한다. 가정과 학교에서 가졌던 불안의 요소를 제거하고 심리적 안정을 추구한다.

5) 심리상담사를 양성하는 공동체

현재 석남은혜교회 성도 중에는 심리상담사 1급 11명, 심리상담사 2급 7명, 음악치료사, 가정상담사 등이 있다.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 상담사를 양성하였으며, 평신도가 평신도를 양육하는 치유의 공동체로 자리 잡고 있다. 초신자가 들어오면 평신도 사역자들이 그들을 양육하여 정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심리상담사 교육은 인천 7기까지 진행하였다.

6) 전문 심리상담사가 담임목사인 공동체

석남은혜교회 담임 류순규 목사는 (사)행복한가정연구소 소장으로 부부상담 전문가로 목회상담사 자격증, 심리상담사 자격증, 가족상담사, 인성교육 전문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상담사이다. MBC 생방송 오늘아침 '新가족 상담사'로 3년간 활동을 했으며, 행복한평생교육원 교수로 전국 심리상담사 양성 교육을 하고 있다. 개인 상담은 월~금요일에 하고 있다.(www.행복한가정연구소.kr)

7) 상담목회로 자립을 한 교회

상담목회의 기본적인 목회 관심은 교회 밖에 있는 비기독인과 교회에서 상처받고 떠나서 정착하지 못하거나 교회를 아주 떠난 영혼들이다. 목회상담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돌보는 목회라면, 상담목회는 철저히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 궁극적인 목표는 영혼구원이다. 즉 새로

운 전도 패러다임을 구현하는 것이다.

“전도가 어렵다.”고 말들을 한다. 개척해서 10년, 15년이 되어도 20~30명 성도와 함께 목회하는 미자립교회들이 많다는 것은 전도가 어렵다는 것을 실감나게 한다. 대형 교회는 특별한 전도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수평이동되는 성도가 많다. 또한 최근 새로운 신앙체계를 가지고 있는 성도 중 그냥 예배만 참석하기 위해 대형 교회로 몰리는 경향이 있다. 그에 반해 개척 교회에는 스스로 찾아오는 성도가 가뭄에 콩 나듯이 한다. 그런데 상담목회의 결과 전도지 한 장 돌리지 않아도 스스로 찾아와 상담을 받고 영혼 구원의 축복을 받는 이들이 많았다. 찾아오게 만드는 전도가 상담목회이다. 지금은 전도지를 통해 성도들이 직접 전도와 교회 소개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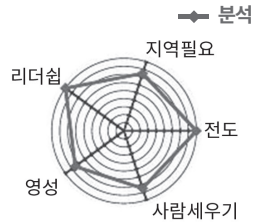
8) 지역사회에 그리스도인의 재능을 환원하는 공동체

석남은혜교회 성도를 심리상담사로 양성하는 목적은 한국에서 이혼율이 가장 높은 인천 서구지역 결손가정의 상처받은 부부와 청소년을 돌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부세미나, 인성교육, 청소년 진로 등을 하고 있다. 우물 안 개구리처럼, 교회 안에서만 재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인의 재능을 환원한다. 그들과 함께 울고, 웃는(롬 12:15)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있다.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선교에도 꿈을 가지고 있다. 선교하는 곳은 라오스, 수원 온전한교회, 캄페션, 행복한가정문화원, 중부연회 장학금, CTS기독교 TV방송, 한국 사랑의 공동체이다.

사례 4

매일의 섬김으로 다가가는 전도 목회 시작부터 지금까지

- 신현희 목사(경기연회 안산남지방 안산나눔교회)



전도를 하다 보면 “교회가 어디냐?” 묻는 사람들을 종종 마주친다. 단순한 관심의 표현이기도 할 테고 예의상 한 말일수도 있지만, 요사이처럼 교회가 비판의 대상이 되는 시대에 “교회는 지금 어디쯤 와 있나?” 묻는 질문으로 듣는다. “젊은 것 같은데, 전도사냐 목사냐?”, “교회는 몇 명이나 모이냐?”, “개척 교회 힘들지 않냐?”, “매일 이렇게 나오냐?”라는 질문과 함께 가장 많이 듣는 말이다. “교회가 어디에 있어요?”

“비밀입니다.”

“네?”(당황한다)

“저희 교회는 아무나 못 오거든요?”

“허허~”(무슨 소리가 싶기도 하고, 목사가 사람 차별하면 쓰겠나 싶은 표정)

“사실 저희 교회는 규모가 작아요. 그냥 간만 보고 갈 요량이면 안 되구요, 와서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순종하고 훈련받을 사람만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올 수 있지만 ‘아무나’ 못 오는 교회입니다.”

‘교회 어디 있나 알고나 있자’고 그냥 묻던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정말 와서 볼 사람이면 안 가르쳐 줘도 찾아올 테니 그냥 웃으며 인사한다. 교회가 왜 부흥되지 않는가를 묻기 전에 교회가 찾아오고 싶은 곳인가를 물어야 한다.

안산나눔교회는 올해로 개척 7주년이 지난 지역교회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세워져 2010년 8월 15일(월)에 설립 감사 예배를 드렸다. 초대 담임목사는 수련목회자 과정을 마치고 안산나눔교회를 개척해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던 중 이듬해 3월에 캐나다로 이민을 갔다. 개척 후 7개월 만에 파송된 수련목을 마친 전도사가 현 담임목사이다. 전임목회자가 가족과 함께 떠났고, 교인은 한 사람도 없었다. 감리사와 새로운 담임자가 공동 명의로 계약을 하면서 2,000만 원의 보증금이 필요했다. 고맙게도 전임자는 별도의 시설비를 따로 요구하지 않았다. 오래된 3층 건물의 2층을 사용하고 있는 안산나눔교회는 40평 규모에 예배당과 애찬실, 주방으로 나뉘어 있다. 목사 안수를 위해 교회개척 또는 단독목회 1년 이상을 필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준비되지 않은 개척의 시작이었다. 교회 이름을 바꾸지도 않았다. 지역 선교에 대한 비전이나 계획도 없었다. 그저 안수도 받기 전에 파송지가 정해지지 않아 ‘준필’ 상태나 ‘미파’로 기록되지 않기 위한 임지 찾기의 결과였기 때문이다.

2011년 3월 27일 그렇게 첫 주일 예배를 드렸다. 한 달 뒤, 4월 27일 서울 남연회에서 안수를 받았다. 부임감사예배나 재창립 예배는 드리지 않았다. 다행히 전도사 시절에 동역했던 전도사들 중에 유학을 앞둔 이들, 사역을 쉬고 있는 이들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 주일예배 인원은 목사 부부와 동역자 세 사람을 포함해 다섯 명이었다.

교우들이 없는 교회에서 딱히 목회라 할 것이 없었다. 먼저 예배를 드렸다. 때로는 임신한 아내와 둘이 드려야 하는 예배였지만 주보를 만들고, 주일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 정성껏 준비했다. 서너 사람이 모인 예배에서 때로는 충만함을 누렸지만, 때로는 오전 예배만 드리고도 맥이 빠지는 허탈함에 일찍 교회 문을 닫고 집에 돌아온 적도 많았다. 무엇보다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래서 기도했다. 한참을 기도하니 줄음이 왔다. 그래서 성경을 꺼내 읽기 시작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있기를 구하는 마음에 사도행전

을 읽었다. 6장 4절에 시선과 마음이 고정되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행 6:4)

오순절 성령의 임재로 부흥일로에 있던 예루살렘교회에 일어난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간의 갈등을 배경으로 일곱 집사를 세우는 장면에서 열두 사도들이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구제와 제반행정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고 천명하는 장면이다. 목회자는 초대교회에서 사도와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교인이 있는 없는 감당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이라는 생각이 확고해졌다. 그래서 새벽기도를 시작하기로 마음 먹었다.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루도 거르지 않는 365일 새벽기도의 시작이었다. 또 한 가지는 매일 전도였다. 정한 예배시간에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도 말씀 사역이지만 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나며 전하는 것은 더욱 더 말씀 사역이지 않겠나? 그래서 그때부터 전도를 시작했다. 진로를 정하고 거리에 다니는 순례전도를 하고, 주변 버스정류장 두 곳을 정해서 거점 전도를 시작했다. 특별할 것도 없지만 한 가지 지켜온 것이라면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전도를 한다는 것이다. 비범함은 때로 평범함의 지속에서 온다.

이웃 지방에서 비슷한 시기에 개척한 김명환 목사(군포지방 평안교회)와 만나 전도에 뜻을 정했다. 각자 전도하다가 매주 금요일이면 함께 모여서 군포와 안산에서 함께 힘을 모아 전도하기로 했다. 2011년 6월부터 전도를 시작했다. 매일 전도를 나가니 뜻밖의 만남이 이어졌다. 그러나 그것이 이내 전도의 열매로 나타나지도 않았고 한 사람을 교회로 인도해 오지도 못했다. 그렇게 1년 2개월이 지났다. 교회에 방문한 사람이 몇 명 있었지만 다시 오지 않았다. 교인으로 등록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적지 않게 실망했고, 목

회자로서 부르심에 대한 의심과 원망마저 생겨났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다. 다른 방법이 없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2011년과 2012년의 기억이 연결되지 않는다. 어떤 비약이 있었다. 등록 교인 한 사람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회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척박한 현실에서 기도하게 하신 것도, 첫 아들을 순산하게 하신 것도, 신실한 전도의 동역자를 만나게 하심도, 교회의 연합을 통해 교파를 초월하여 교류하게 하신 것도 그랬다. 만남을 통해서 생각지도 못한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신 일과 그 기간 동안 끊임없이 돕는 손길을 보내신 일은 놀라웠다. 선배 목회자들을 통해 안산대학교에서 채플 찬양인도를 하고 설교할 수 있도록 예배의 장을 마련해 주시기도 했다.

이웃한 교회들의 협력 없이 교회가 자립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안산나눔교회가 선교와 교육에서 최소한의 자립을 이루기까지 지역교회뿐 아니라 대형 교회들과의 교호작용이 매우 중요했다. 정확히 말하면 협력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다. 선한 동기에서 시작해 적극 협력할 준비를 하고 있는 교회들을 만날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2014년을 지나며 안산나눔교회에 선교, 교육, 재정의 자립을 이루게 하셨다. 교회 개척의 목적이 ‘자립’이 아님은 굳이 논할 필요가 없다. 부흥으로까지 나아가야 한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이를 위한 통로로 세 교회의 도움이 컸다. 용산에 있는 청파교회, 평택의 기쁜교회 그리고 압구정의 광림교회다.

청파교회는 학부 시절부터 멘토로 삼았던 김기석 목사의 설교와 목회자의 자세를 견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지금까지 끊임없는 신뢰와 도움을 주고 있다. 70~80년대 개척 목회자들이 주일 사역을 마치고, 또는 목회의 힘겨운 시점을 만났을 때 기도원으로 달려가듯 영혼의 샘과 몸과 마음을 기뻐

정 같은 곳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의탁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일 수 있다.

평택에 있는 기쁜교회와 손웅석 목사는 개척의 좋은 모델이다. 개척 시작과 함께 막막한 마음에 주소록을 참고하여 교회개척 상황을 알리는 일백 통의 이메일을 보냈다. 두 통의 답장이 왔다. 하나는 기도를 약속한 가까운 선배의 답장이었고, 또 하나는 손웅석 목사였다. 기꺼이 만남을 제안했고, 교회개척과 목회자가 지켜야 할 중심에 대해 진지한 조언을 해 주었다. 기도후원과 재정지원도 단비처럼 고마운 일이었지만, 무엇보다 손웅석 목사는 교회개척의 전 과정을 통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경험을 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조언을 해 주었다.

마지막으로 광림교회 김정석 목사의 솔트플랜(SALT PLAN)을 만났던 것이다. 솔트플랜은 결연을 통해 교회 개척과 성장을 돕는 감리교회의 대표적인 목회지원 프로그램이다. 2012년 25개 교회를 심사, 선정하여 지원했던 1기 솔트 플랜 대상 교회로 선정되어 2년의 교육, 인적 자원, 재정적 후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서너 명이 모여 상가 교회 월세를 감당하기도 버거웠던 목회 초기의 어려움을 수월하게 만들었다. 전도대로 훈련된 이들의 지역 방문이 많은 열매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교우들의 전도 동력화에 큰 힘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 밖에도 교회의 크고 작은 일에 몰심양면으로 돕는 성도들과 교회들의 손길이 있었다. 혼자 설 수 없는 연약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받되, 감사와 거룩한 부담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은혜의 통로인 사람들을 통해 거저 주어진 것이지만 이 또한 시간이 지나가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개척이 힘든 부분은 사람이 오지 않아서가 아니다. 왔던 사람이 오지 않을 때 배나 더 힘겹다. 새롭게 교회에 출석하며 헌신하는 이들 못지않게 떠

나가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이유를 설명할 겨를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돌아선 사람도 있었고, 몇 가지 서운한 일들이 있었다며 교회 출석이 점점 뜸해지더니 어느 날부터 교회와 멀어졌다. 오해 때문이기도 했고, 목사 또는 특정 교우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나타내기도 했다. 결국 담임목사인 나의 부덕으로 알고 자책하기도 했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잘못이 있다면 이해와 사랑으로 덮고, 또 질책을 해 달라고도 말했다. 하지만 이미 거리가 좁힐 수 없을 만큼 멀어졌다. 돌아선 마음을 돌이킬 수도 없고, 결정적으로 사람이 ‘싫어졌다’는데 다른 방법이 없었다.

목회에는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 비전은 교회론이고 전략은 목회 철학이다.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 생명을 전하는 안산나눔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지역 선교와 교육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특별히 안산시 전체에서 한 부모 가정 비율이 가장 높은 본오동 지역에서 위기에 있는 가정과 자녀들을 회복과 변화로 이끄는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있다.

2017년 현재 안산나눔교회는 장년 30명 규모의 살아 있는 교회다. 느리지만 듣고 믿어 세례를 받는 전도가 일어나고 있고, 선교와 훈련으로 살아 있는 교회다. 본오동에 살며 교회에 출석하지 않지만 안산나눔교회에 대해 우호적인 다수의 잠재적 성도들과 함께하는 지역교회다. 종합복지관과 연계하여 주일마다 지역의 독거노인을 위한 반찬 배달을 하고 있다. 안산대학교 학원선교로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채플을 담당해 찬양인도를 하고, 학교에 있는 청년들을 복음으로 양육하고 있다. 파송선교사는 없지만 해외 선교사들을 위한 후원을 계속하고 있다. 도움을 받던 교회가 미력하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기쁨이고 기적이다.

개척 이후에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은 375장이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7년이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아직 목회의 초년병 티를 벗지 못했다고 고백하는 목회자는, ‘비전이 있냐?’는 물음에 아직도 헤매고 있다

고 고백한다. 다만 어느 때부터인가 목회의 '좋은 자리'에 대한 생각을 버렸다. 좋은 자리가 따로 있어 그곳에 가기를 염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곳을 좋은 자리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내가 선 이곳이 거룩한 땅이 되게 하셨던 모세의 하나님과 부르심을 믿고 갈 수밖에 없다. 갈 길을 모를 때 앞드려 뜻을 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한다.¹⁾

1) 신현희 목사의 다짐(개척을 시작하면서)

- 목회가 무엇인가를 반드시 묻자.
- 임지는 언제나 나의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곳일 가능성이 높다.
-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롬 11:29).
- 예쁘고 아담한 교회도 좋지만 인테리어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를 세우는 일이다.
- 교회만 할 수 있는 일을 찾자. 목사다운 일을 시작하자.
- 여기저기 쫓아다니기보다 자신에게 본이 되는 소수의 목회자들에게 배우고 도움을 구하자.

사례 5

전도와 섬김의 노인 목회

실버 처치를 통한 교회 부흥

- 우효철 목사(중앙연회 성남지방 아름다운교회)



귀국

이글거리는 열대의 태양 아래서 땀을 흘리며 사역을 했다. 남의 건물을 임대해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개척 선교회의 성원을 힘입어 자메이카 선교 센터 겸 한인 교회당을 지었다. 자메이카의 한국인들이 선교센터를 중심으로 뭉치고 결혼식을 비롯한 모든 애경사가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사회복지 사역과 현지 유치원 사역 등의 선교 사역도 함께 이루어져서 전도와 선교가 활기를 띠게 되었다.

7년이 지나자 향수병이 생겼다. 사명이니 평생을 그곳에서 일하다가 뼈를 묻고자 했는데, 연로한 부모님이 마음에 걸려서 귀국을 위해 기도를 시작했다. 일천번제를 드리며 이곳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고국으로 돌아가 새로운 사역을 할 수 있기를 간구했다. 햇수로 10년째가 되는 어느 날 주님이 비로소 응답하셨다. “이곳에서의 너의 사역이 끝났다.” 그러고는 일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귀국하여 성남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다. 원래 계획은 시골 교회에 부임하여 부모님을 모시려 했는데, 수도권의 도시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많이 고심했다.

귀국 비행기 표를 끊으니 돈이 딱 떨어졌다. 차비 겨우 남았을까? ‘그래도 고국이니 가면 살 길이 있겠지.’ 귀국하여 교회를 찾아갔다. 공항 리무진을 타고, 택시를 타고 물어물어 찾아간 임지에는 기다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

다. 자메이카와 한국이 시차 때문에 하루가 차이 나는 것을 잊었다. 몇몇 성도가 어제 교회에 모여서 기다리다가 지쳐서 돌아갔단다. 자메이카는 한국보다 하루가 늦는데, 자메이카 시간으로 항공 일정을 알려서 일어난 실수였다. 이렇게 엇박자로 시작한 한국의 목회는 막막했다. 십 년 세월 한국을 떠나 있는 동안 강산이 변했고, 목회 환경도 너무나 달라져 있었다. 그러나 자메이카에서 선교할 때부터 성원을 아끼지 않았던 개척선교회의 김영호 회장과 회원들이 반가이 맞아 주셨다.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음으로 양으로 많은 성원을 해 주셨다. 정말 큰 힘과 의지가 되어 주셨다. 회원님들에게 자문을 구하면서 나름 열심히 전도를 하고, 목회를 했다.

사명의 발견

아름다운교회는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 6번지 굿모닝 파크 빌이라는 주상복합 빌딩 3층에 위치하고 있는 개척 교회이다. 입지 조건은 수정구 내에 양지동과 은행동을 끼고 있고, 남한산성 공원 초입에 있다. 봄, 여름, 가을에는 시원한 바람에 꽃향기가 실려와 머물다 가는 곳이다. 겨울에는 멋진 설경이 펼쳐지는 아름다운 곳이다. 공원 안에는 절에서 운영하는 무료급식 식당이 있어서 노인들이 많이 모인다. 주말이면 등산객들로 교회 앞길이 붐빈다.

교세는 등록 교인이 30여 명 정도 되고, 출석 교인은 20여 명 정도 되었다. 교인의 90% 이상이 교회에서 사십 리 이상 떨어진 경기도 광주시에 거주하고 있다. 개척 초기에는 성남에 거주했지만, 광주가 개발되면서 대다수가 광주로 이사를 한 것이다. 첫 한 해는 환경에 적응하느라고 보냈고, 2015년도에 상계교회 목회코칭 프로그램에 연동되어 열심히 전도를 했다. 철마다 남서울 은혜교회에서 미용 봉사 전도를 나와 주었다. 교회가 침체되어 문 닫은 교회라고 오해를 받기까지 했는데, 교회 홍보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2016년 3월부터 교회 안에 공동 작업장을 열었다. 약 30명 정도의 노인들이 나와서 일을 하게 되었다. 이 일은 정부 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시니어 클럽

이 관리하는 사업이다. 2016년 11월 17일부터 실버 처치를 열었다.

실버 처치 사역을 통한 교회의 부흥

그동안 살펴본 한국 사회는 점점 고령화되어 가고 있어, 노인들에게 전도하고, 노인들을 구원하는 사역이 긴급하다고 생각한다. 안타깝게도 한국의 노인 자살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

고령층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원인은 외로움과 질병 등 다양하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가 빈곤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실태조사 결과 자살을 생각해 본 60세 이상 68만6743명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인 40.3%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었다고 답했다.

2017년 봄 한 TV방송에서 천주교 단체 구제금 500원을 받기 위해 주로 노인들이 500미터 이상 줄을 선 것을 보았다. 노년의 우울에 빠진 노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런 국내 상황 속에서 노인들의 영혼을 시급히 구원하고, 삶에 위로와 용기를 주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실버 처치를 계획하며 기도하였다. 그리고 내 부모를 섬기는 심정으로, 내 부모님에게 전도하여 구원받게 해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2016년 11월 17일 첫 집회를 열어 현재 51주째 집회를 마쳤다. 처음에는 수십 명의 노인들이 모였지만, 몇 주가 지나지 않아 100명을 넘어서고, 앉을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많은 분들이 모였다. 평균 110명 이상의 노인들이 매주 꾸준히 모여서 복음을 듣고 있다.

실버 처치의 원리와 실행 방법

1) 실버 처치는 연로한 노인들이 교회에 오기를 꺼리는 두 가지 점을 보완하여 노인들만의 집회를 한다. 노인들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주일 성수와 헌금에 대하여 부담을 느낀다. 그러나 노인들은 교회에 관심이 있다. 이들은

복음과 천국에 대해 관심이 있다.

그래서 주일을 피하여 주 중에 하루를 택하여 노인들을 불러 모아 매주 목요일 12시부터 모여서 두 시간 정도 집회를 한다. 집회 시에는 먼저 기독교 영화나 간증을 1시간 정도 상영한다. 또 한 시간은 쉬운 찬송이나 복음 성가를 하며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집중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설교를 한다(초기에는 노인들에게 일절 현금이나 현신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준다.). 찬송은 노인들의 정서에 맞는 옛 찬송이나 복음 성가를 한다. 첫 노래는 ‘고향의 봄’을 불러서 분위기를 유도하며 고향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면서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사모하게 이끌어 간다. 주로 불렀던 복음 성가가 ‘세상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내게 강 같은 평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이 좋은 길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그리고 찬송가도 부른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내 주의 보혈은’,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등등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과 구원, 영생, 천국, 치유 등의 찬송을 주로 부른다.

그리고 집회를 마친 후에는 보릿고개를 겪은 노인들이 여전히 애착을 가지고 있는 백미 쌀을 1킬로그램씩 나누어준다. 그럼으로써 생활과 생존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실버 처치 집회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그리하여 세상을 떠나기 전에 구원받아 천국 가도록 적극 돕는다. 일정 기한이 지나면 믿음이 정착되어 자발적으로 주일 예배에 참여하게 되고, 그때는 또 스스로 헌신을 할 수 있도록 문을 개방한다.

2016년 11월 17일은 세족식과 더불어 시작을 했다. 첫 모임에 50으로 시작하여 현재 120명 내지 130명 정도 모인다. 때로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렇게 말리는데도 병 낫은 것이 감사하여 감사 현금을 드리기도 한다. 어떤 분은 용돈을 휴지에 싸서-보통 몇 천 원 정도-슬쩍 주시면서 “목사님, 담배 사 태우세요.” 한다. 어떤 분은 맛있는 반찬을 하셔서 가져다주신다. 지금은

20~30명 정도의 노인들이 주일 예배에 꾸준히 참석을 하고 있다. 헌신자도 늘어나서 기명 헌금을 하기도 하지만, 주로 무명으로 한다. 꾸준히 늘어가고 있다. 그 덕분에 예배가 활기가 넘친다.

2) 아름다운교회가 실버 처치를 시작하자 이웃에 있는 장로교회가 본받아서 하고 있다. 또 강동지방 호산나교회도 실버처치를 시작했다. 현재 이 두 교회는 50명 내지 60명 정도의 노인들이 모여서 복음을 듣고 있다. 또한 몇몇 교회가 견학을 다녀가서 실버 처치를 준비하고 있다.

3) 실버 처치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것이 있다.

① 장소 : 장소에 가능한 인원이 모이게 되어 있다. 왔다가 좌석이 부족하면 그 다음부터 자동적으로 조정이 된다.

② 진행요원 약간 명 : 노인대학이나 여타 프로그램처럼 식사 제공 등을 하지 않으므로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으며, 안내와 곡식 분급을 담당할 적은 진행요원 인력 정도만 필요하다.

③ 곡물 : 곡물을 지원할 후원자가 필요하다. 자립교회는 자체적으로 실버 프렌드를 모집하여 재원을 조달하면 된다. 미자립교회는 후원 교회 및 후원자가 필요하다.

*실버 처치는 경로대학이 아니라, 말씀대학이다.

*실버 처치는 어르신들을 섬기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다.

*실버 처치는 건강 프로그램이 아니라, 생명 프로그램이다.

*실버 처치는 오락 프로그램이 아니라, 죽음을 잘 준비하게 하는 천국 프로그램이다. 실버 처치는 장수 프로그램이 아니라, 영생 프로그램이다.

*실버 처치는 내 교회에 등록시키려 하지 않고, 천국 생명책에 등록시키

려 한다. 실버 처치는 초청행사에 머무르지 않고, 사도행전적 교회를 실현하려 한다.

3년 전 아름다운교회는 예배 참석 성도가 20명 정도였다. 목회자가 특별한 전도 활동 없이 새 임지에 적응하느라 일 년을 보냈더니, 교인들은 하나 하나 줄어들었다. 이사를 가기도 하고, 돌아가시기도 하고, 전임자와의 관계 때문에 출석하던 분들이 떠나기도 했다. 그 후에 나름 열심히 전도했지만, 그 열매는 너무나 미미했다.

그러나 실버 처치를 한 지 일 년이 된 현재는 실버 처치에 참여하던 노인들 가운데 30여 명이 주일예배에 동참하고 있다. 조금씩 헌신(헌금)도 시작하고 있다. 주일예배 참석 성도가 갑절로 늘어 성전이 허전하지 않다. 기존 성도도 주일이면 실버 처치 때 나누어줄 쌀을 담으면서 나름 보람을 느끼고 있다. 주일 예배에 나오는 노인들이 다시 실버 처치 때에 보조자가 되어 앞장서서 봉사하고 있다.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교회는 탄력을 받고 있다. 이 활력을 계속 살려서 체계적, 조직적, 지속적인 전도를 하고자 한다.

결론

쌀은 가능한 한 좋은 것을 나누어 드리려고 노력을 했다. “식사를 대접하고 싶으나 우리 교회는 장소도 시설도 인력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쌀을 나누어 드릴 터이니 집에 가서서 따끈하게 밥을 지어서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쌀은 기도와 정성이 담긴 건강장수 쌀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노인들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 쌀을 나누어 드린다. 쌀을 나누어 드리는 것은 지역 사회에 대한 공개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어길 수가 없다. 쌀이 떨어지면 더욱 기도하게 된다. 그러면 또 까마귀가 나타나서 쌀을 물어다 준다. 물론 도움을 요청할 만한 곳은 다 부탁을 해 보지만, 결국 결재를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 그래서 이 사역을 하게 되면 더 많이 기도할 수밖에

없다. 보통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필요하다. 하지만 오랫동안 거래하다 보니 도매로 구입할 수 있게 되어, 요즘은 한 달에 90만 원 정도 든다. 그래도 일년에 천만 원 이상의 예산을 세워야 한다. 미자립교회들의 입장에서는 어렵지만, 인원 규모를 조정한다든지, 후원교회를 찾으면 가능하다. 그리고 후원자인 실버 프렌드를 하나하나 세워나가면 된다.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외부 강사를 초청했다. 선교의 비전과 열정이 있는 분이라면 기꺼이 자비량 설교를 하며, 심지어 떡을 해 오시는 분도 있어 외부 강사가 오시는 날은 실버 처지의 일일 부흥회가 되었다. 첫 부흥회를 인도해 주신 장안원교회 이재익 목사님은 떡도 해 오시고, 쌀까지 싣고 오셨다. 두 번째는 개척선교회 김영호 회장이 오셔서 자신의 신앙 간증을 통해 복음을 전해 주셨다. 이렇게 개척선교회 회원들과 성남 지방의 동역자들이 주로 오셔서 복음을 전해 주셨다. 전도 메시지만 전한다고 하지만, 사역을 하다 보니 메시지가 부족할 때가 있다. 이때에 목사님들이나 평신도들 가운데 구원의 간증이 있는 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할 때 노인들이 감동을 많이 받는다. 열심히 사역을 하다 보니 이렇게 좋은 협력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여 주시는 것을 경험한다.

“복음이 흥왕하고 주께서 구원받는 이의 수를 날로 더하시니라. 아멘.”

사례 6

지역아동센터와 도서관을 운영하는 복지 목회

꿈으로 이끄시는 주님

- 이두협 목사(동부연회 원주동지방 평강의교회)



나는 현재 20명의 신도와 함께 목회를 하고 있다. 그중 대부분이 미성년자인 초신자들이고 학부형 2명과 이웃 교회에서 낙심하였다가 아동이 좋아 신앙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함께하시는 70세가 넘는 권사님이 전부이다. 그러나 평강의교회는 올해부터 명실공히 자립을 하게 되었다. 교회 설립 때부터 2016년까지 매월 10만 원씩 선교비를 보내던 후원교회 목사님께 감사 인사와 함께 '8살이면 초등학교를 갈 나이가 되었으니, 이제 선교비를 그만 보내 주셔도 괜찮을 정도로 자립이 되었다.'며 꼭 필요한 교회의 목회자님께 보내 달라고 하였다. 또 선교후원하시겠다는 교회에 정중히 이제 외부의 지원이 없어도 자립이 이루어졌으니, 더 어려운 교회가 많이 있다고 사양하였다.

2017년 10월말 기준으로 일반회계만 21,691,700원을 결산하였다. 외형적 결산금액은 미자립교회지만 자체 건물과 버스도 있고 부설기관으로 “평강의 나라 지역아동센터”와 “상록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2016년 평강의 나라 지역아동센터는 162,975,983원을 결산하였고, 상록 작은 도서관은 54,903,569원 결산하였다. 따라서 교회와 부설기관을 모두 합하면 238,660,552원을 결산하였다. 이에 부설기관인 아동센터와 도서관에서 오히려 다음과 같이 외부로 선교지원을 하고 있다. 개척선교회, 히즈가든 찬양단, 기아대책(네팔 아동지원), CBS 방송선교, 북한어린이 사랑의 분유 보내기

운동(YWCA), 북한 지원 후원사업, 칠레 이**선교사, 태국 박**선교사, 말레이시아 박**선교사, 말레이시아 “뚜알마을”, “버르땅 마을” 자립지원 사업.

평강의 나라 지역아동센터는 평강의교회 주력 선교전략 중에 하나다. 또 하나의 선교전략은 도서관사업으로 상록 작은 도서관이 있다.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선교전략은 등록아동들을 전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등록하는 아동의 보호자와 상담할 때 종교적인 질문과 함께 교회의 부설기관으로서 등록하게 되면 교회도 다니도록 권유하는 방식이었다. 아동들은 아직 자기의사결정에 대한 지원을 받아야 하는 미성년자들이기 때문에 보호자의 협력은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된다. 복지시설에서는 종교적인 강요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전도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종교적인 거부감이 없는 가정에 접근하기 좋은 접촉점이 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기독교가정이었으나 교회를 안 나가는 가나안교인들의 가정과 아이들은 보내도 된다고 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선교전략은 날이 지날수록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가정에서는 거부감이 많이 있었다. 저출산 시대에 아동센터에서는 아동등록에 도리어 어려움이 발생한다. 하지만 이러한 선교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필요하다. 교회마다 아동부가 없어지고 있는 현상을 살펴보면 더욱 절실한 형편이다. 하지만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려면 정부가 만든 많은 제약이 있다. 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사로서 아동복지현장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되어야 하고, 2년 동안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다. 원주의 경우 1억 2천만 원의 잔고증명과 그 예산을 결산해야 된다. 또한 평가를 인증 받아야 예산지원이 이루어진다.

지역아동센터 초창기보다 까다로워졌으므로 2017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10개소의 시범사업 중인 “다함께 돌봄”기관 등을 선교전략으로 권장한다. “다함께 돌봄”은 지역사회에서 맞벌이가정의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기관으로 지역아동센터를 모델로 하여 더 많은 아동을 돌보려고 하는 정부 정책적인 지원기관이다. 올해 2억이던 예산이 2018년도에는 정부

예산이 9억 원 이상 세워지고 17개가 증설예정이며 지자체의 매칭 사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매년 모니터링을 통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생각한다.

작은 도서관은 개척 교회가 쉽게 접근하기 좋은 선교전략기관이다. 아동들을 좋은 프로그램으로 유치하고 활동하기에 적합한 기관이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을 설립하는 데에 투자비용과 소요시간이 적다. 시도마다 다르긴 해도 10평의 전용공간과 1,000권의 도서와 10석 정도의 자리가 있으면 허가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문화 사업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에 제약이 없다. 교회를 개척하고 도서관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기에는 필요경비를 조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즉 인건비와 재료비와 운영비가 있어야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데, 지자체마다 입장은 달라도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곳도 있고 도서를 지원하는 곳도 있다. 하지만 넉넉하지 못한 예산지원이라 늘 부족하다.

이러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해결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식이다. 문화 사업을 주관하는 단체나 기관, 그리고 재단을 두드리는 것이다. 문화 사업을 주관하는 곳은 지자체마다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기다리고 있다.

평강의교회가 완전한 자립을 이룬 교회라고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작지만 나름대로는 구김이 없는 교회이다. 초등학교 신입생으로 교회를 찾은 아동이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세례를 받고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가려고 한다. 매년 세례예식을 하며 커 가는 학생들을 보며, 그런 학생들과 체험활동을 하면서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다. 요한계시록의 빌라델피아교회를 모델로 삼아 작지만 소임을 다하는 교회로 성장하려고 하고 있다. 매달 정기적으로 필요한 곳에 선교비를 보내고 있지만, 올해는 특히 말레이시아에 선교사로 계신 박**선교사님을 통해 두 마을을 위해서 두리안 묘목을 심도록 지원하였다. 한 마을은 150명이 사는 곳으로 50그루를, 또 한 마을은 300명 정도가 사는 곳으로 100그루의 묘목을 심었다. 6년 정도 지나면 교회와 협력하여 마

을의 자립도를 높여나가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커질 것이란 소망을 품고 있다. 또한 평강의교회는 지역사회의 노인들과 정기적으로 문화적인 체험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작은 교회 목회자로서 은퇴 후의 노후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촌대학의 기초영농과를 다니고 있다. 또한 귀농귀촌교육을 100시간 수료하였다. 향후 정책자금을 이자율 2%로 10년 거치로 3억 원쯤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귀농과 함께 노후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아름다운 노년의 축복을 함께 나눌 사람들과 같이 “마을 만들기” 사업을 꿈꾸고 있다.

이 모든 꿈을 꿀 수 있게 된 것은 개척선교회의 도움이 컸다. 형편이 어려울 때 개척선교회를 통하여 예산지원을 받고 다시 열심히 갚아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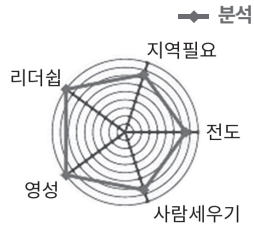
임차료를 내던 도서관은 건물을 인수한 후 안팎으로 이익이 되었다. 지금은 임대료까지 들어오고 있다. 개척선교회로의 상황은 너무나 지루했었다. 하지만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조금했던 내 인생에 여유를 주셨고 성실함으로 이루시는 축복을 알게 해 주셨다. 이자가 없으므로 좀 더 급한 것을 먼저 처리하고 싶었지만 개척선교회하고 맺은 약속은 ‘서원’과 같은 분명한 뭔가가 있었다. 그리고 이후 여유로운 마음의 은혜는 은행과의 신용에서 많은 힘이 되었다. 그리고 은행을 통한 자산증식에 길이 열렸다. 되돌아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별로 없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이행하면 될 뿐이었다. 말씀에 기초하여 믿고 따르면 되었다.

교회를 개척하고 부설기관을 통해 얻게 된 선교전략을 위해 100곳에 선교적인 컨설팅을 해 주는 것을 희망하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없다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을 나누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한 후 교회 안에 지역아동센터를 새로 차린 사례가 몇 있고, 작은 도서관을 설립한 교회들은 상당수 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계속 경험하고 있다.

사례 7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 정주 목회 구산교회 이야기

- 김영선 목사(충북연회 진천지방 구산교회)



구산교회는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구산리에 있다. 교회가 위치한 마을은 전형적인 농촌으로 현재 25가구가 있고, 평균 연령은 70세 정도가 된다. 담임목사는 ROTC 장교로 군복무를 마치고, 목회를 배워야겠다는 생각에서 서울 오류동교회와 아현교회에서 각각 3년씩 전도사로 사역하다가, 1988년 부임하여 현재 29년째 목회를 하고 있다.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목회를 하고 싶었던 마음, 무엇보다 받은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었던 마음, 그래서 작고 어려운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고 싶다는 마음, 그 마음으로 미국 목회와 다른 곳 청빙을 뒤로 하고 담임목사가 시골 교회에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다.

구산교회는 1957년 설립되었다. 18대인 담임목사가 부임할 당시 31년 된 교회였다. 목회자가 단기간 있었고 때로는 비어 있을 때도 있었던 작고 어려운 교회였다. 당시 지역 교회에선 구산양로원이라고 부를 정도로 교인들 대부분이 노인들이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교인들의 의식이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 우리 교회는 시골에 있어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없다는 생각, 그런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러니 정말 그 상황에서는 기도밖에 할 것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교인들의 의식이

바뀌기도 힘들고, 도저히 교회가 자립할 수도 없고, 부흥할 수도 없었기에 하나님에게 매달리는 수밖에 없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나는 믿는다. 그리고 믿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기에 나는 그 상황에서 특별히 어떤 말씀을 붙잡고 목회를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성경을 읽었다. 그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물질이었다. 내겐 어릴 때부터 받은 신앙의 훈련이 있었다. 대학원까지 나왔으니 신학적인 지식도 있었다. 그리고 6년간 큰 교회에서 배운 목회의 경험도 있었다. 그러나 생활에 필요한 돈은 없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발견하고 붙잡은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9절이다.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에 가서 믿음으로 붙잡은 것은 무디(D. L. Moody) 때문이다. 그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도 5학년밖에 다니지 못했다. 고향 농장에서 일하다가 17살 때 보스턴으로 가서 삼촌의 신발 가게에서 일했다. 그때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선생님에게 전도를 받고, 버논 회중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 그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셨는데, 너무 강하고 뜨겁게 임하니까 “하나님, 이제 그만 내려주세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정도였다. 그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무려 100만 명을 주님에게 인도했다. 그런 그가 한평생 주님의 일을 하면서 믿음으로 붙잡고 의지했던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9절이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무디는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아서 성경 말씀 옆에 이렇게 썼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백지수표다. 하나님의 경제(재정)에서 은행은 절대로 파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풍성하신 것만큼 차고 넘치는 자본을 갖고 계신다. 이 은행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보증인이

시다.”

그리고는 이제까지 자기가 갖고 있던 통장을 다 정리해서 없앴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은행장이신 하나님께 기도했다. “주님, 얼마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안 된다고 거절하지 않으시고, 통장까지 정리한 무디의 믿음을 보시고 요구할 때마다 넘치도록 주셨다. 미국 시카고에서 가장 넓은 땅인 24에이커의 대지 안에 무디 신학교와 무디 방송국, 무디 출판사 등이 있다. 복음을 전할 전도자를 양성하려고 무디가 1889년 신학교를 세웠으니 128년이 되었다. 현재 전교생이 만 명이 넘는다. 놀랍게도 전 세계에 수도 없이 많은 신학교가 있는데, 개교 이래 지금까지 128년 동안 전교생에게 그것도 전액 장학금을 주는 신학교는 무디 신학교밖에 없다.

무디 신학교 안에 가면 무디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 무디가 썼던 성경도 있고 노트도 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철자법이 틀리다. 그런 무디였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간 지 118년이 지났어도, 아직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밤낮으로 묵상하면서 기도했다. 시편 1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라고 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면 목회에 열매가 맺히고, 내가 하는 목회가 잘 될 것으로 믿고 밤낮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붙들고 기도했다. 아울러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도록 했다.

그리고 목회에 올인(All-In)했다. 꼭 가야 할 곳 이외엔 가지 않고, 말씀을 읽으며 설교를 준비했다. 10년간 아침 금식을 했다. 받은 성역비는 십일조가 아니라 십의 십조로 다시 다 드렸다. 돈과 같은 이 세상의 어떤 것을 의지해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산다는 것을 교인들에게도 보여주고 하

나눔에게도 보여드리기 위해서였다. 많은 날 0시에 교회에 가서 기도했고, 월요일에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다. 그러면서도 큰 교회에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부임 당시 경상 결산이 390만 원이었다. 그런데 다음 해인 1989년, 800만 원이 되었다. 1990년에는 1,600만 원. 그리고 1991년에는 3,200만 원이 되었다. 1992년에는 6,400만 원이 되었다. 매년 정확하게 갑절로 부어주시는데 너무나 놀랍고 감사했다. 그렇다고 교인 수가 갑자기 늘은 것은 아니다. 교인들이 말씀 안에 바르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삶의 지경이 넓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1992년에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은혜를 주의 일을 위하여 값지게 사용하고자 인도의 안드라 프레디쉬에 교회를 세웠다. 그리고 담임자의 생활비를 10년 동안 전액 지원했다.

가정에는 가훈이 있고 회사에는 사훈이 있듯이, 교회와 목회에도 敎訓이나 牧訓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빌립보서 4장 19절이 어렵고 힘든 교회에 와서 붙들었던 말씀이고, 지금까지 목회에 에너지를 제공받고 있는 말씀이다.

어렵고 힘든 시골 교회에 와서, ‘어떻게 교인들의 신앙을 성장시켜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신앙의 본질로 풀었다. 모든 종교의 본질은 체험(Experience)과 표현(Expression)이다. 체험은 궁극적 실재(Ultimate Reality - 하나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다. 그리고 표현은 그러한 체험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종교적인 체험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체험과 다음과 같은 4가지 차이가 있다.

- 1) 종교적인 경험은 궁극적인 실재(神)와의 만남이다. 궁극적 실재란 모든 것의 근거가 되고 모든 것을 결정짓는 분을 말한다.
- 2) 종교적인 경험은 궁극적인 실재에 대하여 지성, 감정, 의지 모두를 포

함한 총체적(전인격적)인 반응(경험)이다.

3) 종교적인 경험은 매우 강렬하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경험 중에 가장 강하고, 포괄적이고, 압도적이고, 깊이가 있는 경험이다.

4) 종교적인 경험은 행동을 유발한다. 종교적인 경험은 명령을 수반하며, 인간의 행동과 동기의 가장 강력한 근원이다.²⁾

이처럼 종교적인 체험(하나님을 만남)을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만들어진다. 즉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하여 헌신하고 충성하게 된다. 심지어 생명도 내놓고 하나님의 일에 매진하게 된다. 그래서 무엇보다 교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노력했다. 즉 성령을 체험하도록 했다. 1년에 2차례 40일씩 밤마다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간절하게 기도했다. 기도 기간에는 아침 금식을 했다. 그 외에도 특별기도주간을 정해서 주일씩 여러 차례 기도했다. 그런 영적 노동을 통해서 교인들이 성령을 체험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렇게 체험을 한 사람들의 신앙은 놀랍게 변했다. 아울러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교인들도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기도했다.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 여러 가지 병도 고침을 받았다. 이러한 신앙적 체험이 교회 성장과 발전의 가장 큰 요인이 되었다.

어른들만 그렇게 하지 않고, 초등학교 학생들과 중고등부 학생들도 하나님을 만나도록 했다. 주일 저녁 예배와 수요일 예배에도 나오도록 했다. 그리고 여름, 겨울 방학은 물론 봄방학 때도 기도원에 데리고 갔다. 가서 열심히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했다. 밤 집회가 끝나면 산에 올라가서 같이 기도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학생들이 거의 다 하나님을 만났고, 방언도 하

2) 자세한 것은 Joachim Wach의 The Comparative Study of Religions 참고

1. Religious experience is a response to what is experienced as Ultimate Reality. Ultimate Reality mean that which conditions and undergirds all.
2. Religious experience must be conceived of as a total response of the total being to Ultimate Reality. Integral person which is involved, not just the mind, the emotion, or the will.

게 되었다. 언젠가 집회를 마치고 올 때 눈이 내린 적이 있는데, 눈을 맞지 않으려고 모두 검은 비닐봉지를 머리에 뒤집어썼다. 겨울에 기도원 시설이 열악해서 며칠 동안 제대로 씻지도 못해 얼굴도 지저분했지만, 한창 예민한 사춘기 여학생들조차 개의치 않고 깔깔대며 웃으면서 즐겁게 왔다. 서울에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검은 비닐봉지를 뒤집어쓰고 다녔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 내가 방언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했기에 그런 것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영적 훈련은 20여 년이 지나자 놀라운 결과로 나타났다. 교회 여자 청년들은 대부분 결혼을 앞두고 남편이 될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나는 결혼을 해도 구산교회에 다닐 겁니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만났던 신앙적 경험이 나이가 들어 결혼을 해도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게 붙들고 있는 것이다. 살을 에는 것 같은 찬바람이 부는 겨울 밤, 기도원 뒷산에 올라가서 함께 부둥켜안고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방언을 했던 그 감격과 기쁨이 결혼을 해도, 취직을 해서 거주지를 옮기게 되도 교회를 떠나지 못하게 하고 있다.

2017년 어린이주일에 초등학교 이하 37명의 아이들에게 안수기도를 했다. 이들 중 한 마을에 사는 아이들은 하나도 없다. 가까이는 차로 10분 정도 걸리는 덕산면, 15분 거리인 진천읍, 30분 거리인 증평, 40분 거리인 오창, 1시간 거리인 청주, 1시간 20분 거리인 평택 등에서 온다.

일반적으로 농촌은 유입되는 사람이 드물고 떠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신앙적으로 잘 양육하고,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후에 멀리 떠나더라도 고향교회를 계속해서 섬긴다. 교회는 거리상으로 멀고 가까운 것이 아니라, 심적으로 멀고 가까운 것이다. 아무리 교회가 지리적으로 멀어도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쉽게 떠나지 못한다.

목회자는 무엇보다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즉 목회자에게 영적인

은사와 능력이 있으면 교인들이 자기를 영적으로 지도해 줄 수 있다고 믿고 따른다.

이런 일이 있었다. 담임목사가 구산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주일 낮, 설교를 해야 하는데 갑자기 말이 나오지 않았다. 아무리 말을 하려고 해도 입이 잘 벌어지지 않고 말도 나오지 않았다. 너무 갑자기 생긴 일이라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호통을 치듯 아주 큰 소리가 들렸다. “주판알 튕기지 마” 똑같은 소리가 3번 들렸다. 그 소리를 듣고 나자 입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말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판알 튕기지 말라’고 3번씩이나 화가 나서 말씀하시는데, 뭔가 집히는 사람은 돌이키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했다.

예배가 끝나고 한 남자 권사가 와서 “전도사님 제가 주판을 튕겼습니다.” 라고 고백했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그 당시 집집마다 소를 키웠다. 1년에 한 마리씩 낳으면 그게 돈이 되었다. 그런데 웬일인지 동네에서 소가 새끼를 낳으면 예외 없이 죽었다. 군에서 수의사가 왔다 가고 다른 연구소에서도 수의사가 왔다 갔지만, 병명을 밝히지 못했다. 그 권사네 소도 새끼를 낳았다. 아니나 다를까 그 송아지도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서 버둥거리고 있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송아지 병문안을 갔다. 시골에 올 때, 어머니께서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 사용하라고 우황청심환을 주셨는데 그걸 챙겨 가지고 갔다. 송아지가 누워 있는데 몸을 만져 보니 무척 뜨거웠다. 어미가 연신 혀로 새끼를 핥고 있는데,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그 송아지 입 안으로 우황청심환을 밀어 넣었다. 그리고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권사가 나와서 보고는 “전도사님, 소용없어요. 방금 군에서 수의사가 다녀갔는데 아직도 이유를 모르는데요.” 그 말을 남기고 마음이 아픈 지 집으로 들어갔다.

기도하고 교회로 돌아오는데 오기가 생겼다. 그래서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하나님, 아시다시피 000권사가 기르는 소가 새끼를 낳았습니

다. 그런데 병이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최근 몇 달 사이에 낳은 송아지가 다 이유도 모른 채 죽었습니다. 연구소에서 나온 수의사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 송아지를 고쳐주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의 집 송아지는 죽지 않고 산 것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저 권사네 식구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고 알게 해 주옵소서.”

그 송아지가 그 날 저녁 일어나서 어미젖을 빨았다. 그 권사도 놀랐고 마을 사람들도 다 놀랐다. 얼마 후 그 송아지를 팔았다. 그때 그 집에 세탁기가 없었다. 그래서 부인이 매일 세탁기 타령을 했다. 그래 이 권사가 예배를 드리러 와서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송아지 판 돈으로 세탁기 사고 뭐하고, 머리를 굴렸던 것이다.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화가 나셨다. 하나님께서 살려 주신 송아지인데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고, 예배 시간에 그런 생각이나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주판알 튕기지 말라.”고 호령을 하셨던 것이다. 그 다음 주일, 그 권사는 송아지 판 돈 60만 원을 몽땅 하나님께 드렸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 그 권사뿐만 아니라 교인들이 담임목사의 이야기를 잘 듣고 따른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전하지는 못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알려 주시고 보여 주신 것일지라도 듣는 사람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상처를 받기 때문이다.

목회자는 다양하고 폭넓은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성경을 바로 해석해서 전하는 실력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영적인 은사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 특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교인들을 영적으로 가르칠 수 있고 지도할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목회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교인들이 받아들임으로써 자연스럽게 교회의 공유 비전(Shared Vision)이 생긴다. 한 조직이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조직 구성원 모두 공감하는 공유 비전이 있어야만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교회에 자연스럽게

게 공유 비전이 생긴다. 아울러 공유 비전을 중심으로 하나로 단합된 교회가 만들어지고, 교인들이 공유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자연스럽게 부흥하고 성장한다.

베드로처럼 주님을 위해서 다 바치고,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헌신하면 주님이 나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다 채워주신다는 믿음으로 말씀을 읽고 공부하며 묵상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나름대로 전념했다. 주님의 일이라면 앞뒤 가리지 않고 우선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복을 주셨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2002년도에 성전을 지었다. 오래 전에 교인들이 직접 만든 시멘트 벽돌로 지은 건물은 냉난방이 되지 않아서 여름에는 사우나였고 겨울에는 시베리아 별판과 같았다. 한 폰이라도 아끼려고 직영을 했다. 자재도 일일이 사고 인부들도 다 섭외해서 공사를 했다. 감독에 허드렛일까지 했다. 공사를 마치고 나면 현장에 나무 조각 하나 없이 청소를 했다. 그리고 밤에는 모여서 기도를 했다. 집에 들어가면 녹초가 됐지만, 자재를 구입하는 등 이런 저런 것을 준비하고, 몇 시간 눈 부치고 나서 새벽부터 나가서 일을 했다. 그러면서 아침 금식을 했다. 얼마나 힘들게 일을 했든지 응급실에 실려 가기도 했다. 일꾼들 식사와 오전, 오후 간식을 다 해 주었다. 먹고 기분 좋게 일 잘 하라고 최고의 정성을 들여서 했다. 인부들이 일을 마치고 갈 때 한 걸 같이 하는 이 야기가 “이제 다른 데에 가서는 일을 못 하겠다.”고 할 정도로 잘해주었다.

그렇게 교회를 짓는 2002년은 목회자의 아들이 고3 때였다. 자취하는 아들을 위해 기도는 하는데 교회에 매달려서 따듯한 아침 밥 한번 못 먹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이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서 원하는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에 들어가게 해 주셨다. 군 복무를 마치고 미국 에모리대학교 목회학석사 과정에 장학금을 받고 유학을 가도록 길을 열어 주셨다. 그 후 예일

대학교에 가서 신학석사과정도 전액 장학금을 받고 공부하게 해 주셨다. 지금은 에모리대학교에서 구약성서신학을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하고 있다. 5년간 학비 전액과 매달 생활비도 2,800불씩 받고 있다. 에모리대학에서 5년간 박사학위를 하는 동안 받는 장학금이 약 4억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감당할 능력은 없었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사례 8

선택과 집중을 거친 단순한 목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

-엄상신 목사(남부연회 연무지방 은혜와사랑의교회)



2004년 5월 3일 충남 계룡시에 35평을 임대하여 1가정(목사, 아내, 딸, 아들)으로 시작했다. 물론 교회가 탄생되기까지 그해 1월부터 개척 장소를 물색하기 위해 이곳저곳 다녔고 개척한 교회 등을 탐방하면서 현장체험도 하였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기도였다. 공주에 있는 변화산 기도원에서 ‘개척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집중하며 기도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7장 18절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는 말씀으로 응답하셨다.

개척하였다가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많다는 통계를 접한 적이 있다. 아마도 자기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의 좌절감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아니면 기존교회의 틀을 그대로 답습하려다가 힘에 겨워서 포기하는 것은 아니었을까? 또는 재정적인 문제로 그만 두게 된 것은 아니었을까? 아무튼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한 어떤 역경이 와도 기도로 준비해서 응답받은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개척 직전 교회개척성장학교를 안성 사랑의 수양관에서 3박 4일 동안 참여하였다. 강의를 들으면서 핵심가치, 비전세우기, 사명선언문 만들기 등을 통해서 앞으로 탄생될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다 Think Big! Start Small!이라는 구호는 나의 사역을 최소화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개척 교회를 비롯한 작은 교회들이 하는 사역을 보면 중·대형 교회들이 하는 사역과 거의 대동소이 하다. 큰 교회는 담임목사 외에 부목사를 비롯한 사역을 돕는 일꾼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예배를 비롯해 수요일 예배, 금요 철야 기도회, 새벽기도회, 속회 예배 등 많은 예배를 드려도 역할을 나누어 할 수 있기에 그래도 덜 힘들다. 그런데 개척 교회는 교회 청소 및 관리-사찰 집사의 역할-를 담임자가 직접 해야 한다. 또한 새벽 차량운행을 비롯해 모든 공예배 차량운행-운전기사의 역할-도 담임자가 손수 해야 한다. 이렇게 1인 다역의 사역을 하다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탈진하여 두 손 들고 포기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교회 개척은 100m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경주이다. 그래서 처음 개척한 은혜와사랑의교회는 사역을 단순화 하였다. 예배 사역은 주일예배, 새벽기도회 2가지로 단순화 하였다. 물론 주일예배는 목사, 사모, 딸, 아들이었고 새벽기도회는 살고 있는 집이 대전이어서 목사 혼자서 드렸다. 그러나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이 2가지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하루도 빠지거나 거른 적이 없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 저녁에는 군에서 배운 초코파이와 차 돌리기를 철도 건널목 근무자, 아파트 관리원, 파출소 직원들을 찾아가서 했다. 때로는 토스트와 과일을 준비해서 나누고 격려하며 원하는 분에게는 기도도 해 주며 봉사하였다. 이 또한 변함없이 거르지 않고 규칙적으로 하였다. 사역은 단순하였어도 한 번 결정한 사역은 몸이 피곤하여도 날씨가 안 좋아도 언제나 반드시 하였다. 그랬더니 이제는 목요일이 되면 은근히 교회 목사를 기다리고 반기는 분들도 생기고 지역에 좋은 이미지를 끼치게 되었다.

개척을 하니 최고의 장점이 시간이 많다는 것이었다. 하루의 시작은 새벽 기도요, 오전은 성경읽기와 독서, 기도로 시간을 보냈다. 개척을 하면서 최

고의 축복이 성경을 많이 보고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는 것이다. 오후에는 교회 주변을 다니며 만나는 사람에게 명함을 나누어 주며 교회가 있음을 알렸다. 전도지는 받고 버리는 경우가 많으나 명함은 그래도 함부로 버리지 않았다. 개척 후 하루의 삶은 참으로 단순하였다. 새벽에는 기도, 오전에는 성경읽기와 묵상, 오후에는 명함으로 교회 알리기.

5월에 개척 후 그 해 11월 처음 맞이하는 추수감사주일이었다. 교회 탄생 이후 처음 절기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인원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다. 그런데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미묘한 감정이 들었다. 추수감사절기 예배는 내 마음 속에 늘 축제였다. 과일과 곡식으로 강단을 장식하고 화려한 꽃꽂이가 있었고 떡과 음식을 나누는 추억들이 있었다. 그런데 개척 후 첫 번 추수감사주일은 너무나 조촐하였다. 불현듯 신앙의 자유를 위해 신대륙으로 가서 첫 번 추수감사를 드린 청교도들의 마음이 느껴졌다. 남편과 아내를 잃고 부모와 자녀를 잃고 형제와 남매를 잃고 드렸던 첫 번 추수감사예배!

이들이 지나 가까운 곳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전화하셔서 “시간 있냐?”고 물으셨다. “네, 시간 있습니다.” 사실 개척 교회 목사에게 가장 남는 것은 시간이었다. 그런데 목사님이 오셔서 차에 하나 가득 실었던 것을 내려놓으시는데 쌀, 과일, 농산물 등 추수감사주일 강단 장식을 해 놓았던 것 전부를 개척 교회 하느라 수고 많다며 갖다 주셨다. 그 다음 날 또 다른 목사님이 전화하셨다. “시간 어떠세요?” 그 목사님도 차에 한가득 추수감사주일 강단 장식한 것을 싣고 오셔서 주고 가셨다. 첫 번 추수감사 후 이웃교회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방문해 위로해 주실 때 ‘나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10명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9명은 자수성가를 하고 나머지 1명은 아직도 자수성가를 못했을 때 부모의 가장 관심 가는 자녀는 아직도 자수성가하지 못한 자녀일 것이다. 그 생각이 드니 ‘하나님! 나도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 분명하군요.’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이 펄펄 쏟아졌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한 가지 분명한 사실만 확신하여도 목회가 즐겁고 행복하였다.

6개월이 지나도 눈에 보이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자 조금씩 조급함이 생기기 시작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야 하나요?’ 그런데 기도하던 중 조급함이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임을 알게 하였다. 아브라함의 25년간의 기다림, 야곱의 20년 타향살이, 요셉의 13년간의 인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6개월 아니라 그 이상도 견딜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깨달음을 주신 후 어느 날 새벽(이사야 60:22)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와 속히 이루리라”는 말씀을 주시더니 조급함은 마음속에서 사라지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되었다.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놀랍게도 매주 1가정 이상 보내 주시면서 등록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훈련을 시키신 것이다. 어느새 보기에 딱 좋은 30명 정도의 성도가 모여서 예배하게 되었고, 점진적으로 50명, 70명까지 성도를 허락하셨다.

개척해서 70명 정도 예배드리게 되니 목회가 재미있고 행복했다. 그런데 건물이 경매에 들어가 세 들어 있던 모든 세입자는 건물에서 쫓겨나야 하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정말 앞이 캄캄해지기 시작했다. 평소 낙천적인 성격이라 웬만한 일에는 크게 고민하지 않던 나도 이런 일이 생기니 잠도 제대로 못 이루고 불면증까지 나타나기 시작했다. 1주일 사이에 몸무게가 7kg이나 빠졌다. 이제 모든 게 끝인가? 이대로 끙끙 앓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하나님께 엎드려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너 그렇게 슬퍼하고 힘들어 하는데 원위치 시켜줄까?’ 군목 출신이라 그랬는지 <원위치>라는 군대용어로 말씀하셨다. 혼자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원

위치라면 건물에서 그대로 예배드리면서 물질적으로 손해는 보지 않지만 성도는 하나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었다. 지금의 상황은 물질적으로 손해는 입을지는 몰라도 함께 신앙생활 하는 성도가 70명이나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아니에요. 원위치는 싫어요.” 정신을 차리고 성도와 함께 매일 기도하기 시작했다. 밤낮으로 기도했다. 그러는 중에 기획위원들과 의논했다. 다른 곳으로 옮겨야만 하는 건 분명한데 임대를 얻을 것인지, 아니면 땅을 구입해 성전을 지을 것인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고 결정해야만 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주셨다. 임대 얻어서 예배드리다가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 없지 않은가? 땅을 사서 천막을 치고 예배드리더라도 쫓겨 다니지 않는 우리의 예배당을 짓자. 모두 한마음으로 같은 의견을 내었다. 만장일치였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 전화위복의 하나님께서 건물에서 쫓겨나야 하는 위기 속에서 성도 모두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한마음으로 묶어 주시고 성전부지도 허락하시고 2010년 2월 성전건축기공예배를 드리며 성전건축을 시작하게 하셨다. 그 땅을 담보로 은행용자를 얻어 성전건축을 진행하게 하시더니 드디어 2010년 9월 새 성전에 입당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셨다. 개척하고 6년 만에 위기도 기회로 바꾸셔서 성전도 허락하신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시다.

새 성전을 짓고 예배드리면서 새로운 성도를 허락하시고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소중하고 귀하신 분들을 보내 주시면서 어느덧 등록교인 250명이 되었다. 지방 내에서 입교인 수로 보나 재정결산으로 보나 손가락으로 꼽힐 만한 정도로 성장시켜 주셨다. ‘이만하면 됐구나! 이제는 안정적으로 됐구나!’ 하는 마음이 들고 재정적 어려움도 느끼지 못하자 기도나 목회가 안일해지기 시작하였다. 사사기의 패러다임<죄-고통-하나님께 부르짖음-안정-무사안일-죄>이 나에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서서히 하나님과 멀어져 갔다. 더 이상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일이 줄어들었다. 그런데 무사안일하자 그 현상이 교회에 전반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더 이상의 성장은 없

고 아니 오히려 서서히 감소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도 이런 일들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일어나다 보니 크게 위기까지 느끼지는 못했다. 끓는 물속의 개구리(Boiled Frog)처럼 서서히 위기는 오기 시작했는데 느끼지를 못했던 것이다. 교회 안에서는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목회자의 권위는 추락하기 시작했다. 경매로 건물에서 쫓겨나게 된 갑작스러운 위기보다 오히려 더 큰 위기가 서서히 온 것이다.

목회자의 탈진이라는 것이 이런 것인가 보다. 의욕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낙심과 절망이 몰려 왔다. 목회를 그만둘까 하는 마음까지 엄습했다. 이러면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다. 눈물로 기도도하고 금식기도도 하고 그러는 중에 무사안일하고 나태했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셨다. 그런데 회개하고 나니 오히려 새 희망과 힘이 생겼다. '다시 시작하자! 처음 개척하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자!'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자 좋으신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푸셨다. 21일 다니엘 기도회를 하게 하셨다. 목회자도 교인들도 회복시키셨다. 지난날들을 회상해 보면서 한 가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께서 시작도 끝도, 진행되는 과정도 함께해 주셔야 함을 고백한다.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이시니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만 목회는 이루어지고 행복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한다.

사례 9

어려울수록 기본을 붙드는 기도 목회 기도 목회하고 다음세대를 세우는 교회

- 김종철 목사(충청연회 당진지방 로템교회)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요, 죄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살려내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곳이 아니라 반드시 존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곳이어야 한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멸망 받을 영혼을 살리는 곳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복된 일이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일에 목회자로 부르셔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세우시고, 거룩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신 것은 감사한 일이다.

당진은 기독교 선교 120여 년이 되어가고 있다. 여느 지역에 비해 기독교인의 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그러나 지금은 인구도 늘고, 산업화의 발달로 도시화되어 가고 편해졌지만, 신앙생활하는 삶은 점점 나태해지고 심지어는 힘들어지고 있다. 소속된 지방회원의 수가 작년 대비 교회학교 포함해서 전체로 줄어 들고 있다.

로템교회는 2006년 10월 12일에 충청연회 당진지방에서 개척되었다. 로템교회의 목사 가정 네 식구가 가정에서부터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순종하고 개척을 시작하겠다고 부교역자 사역을 사임하고 임시 거처로 왔지만 막연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전도하여 한 두 가정이 모이게 되었고, 7개월이 지난 후 설립예배를 드릴 때는 20명 남짓

안 되는 인원이 30여 평 되는 2층 상가를 임대하여 지방회원들의 축하 속에 시작되었다. 그리고 1주년을 맞이하기 전에 자립을 하게 되었고 교회가 빠르게 부흥을 하였다. 무엇보다 성도들의 전도로 성도가 늘어가는 기쁨은 무엇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행복했다.

그러나 2주년이 되는 시점에 상가 주인으로부터 상가를 비워 달라는 말을 듣고 막막했지만, 적은 수이지만 함께 기도하고 작은 땅을 구입하고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다.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다. 그리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역사의 현장은 감격적이고 큰 기쁨이고 영광이다. 상가에 개척하여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거의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척한 지 얼마 안 되고, 몇 안 되는 성도와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큰 기쁨이 있는 일임에도 현실은 어려웠다.

함께 기도하던 중 가까운 곳에 감리교회가 없는 작은 땅(100평)을 보증금을 담보하여 그 땅을 재 담보하는 조건으로 은행에서 4억을 대출받아 구입하였다. 그러고는 매일 저녁마다 함께 땅 밟기를 하면서 기도하던 중 3개월 만에 건축업자를 선정하고 5개월여 만에 땅, 건물건축, 성물 포함 12억여 원을 들여 건축을 마무리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3주년을 맞이하면서 빛이 있어도 하나님께 봉헌하게 되었다.

교회를 건축하면서 몇 가정이 교회를 나가게 되었다. 그리고 건축 후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드러내고 몇 가정이 나갔다. 교회가 처음으로 겪는 위기였다. 지역에도 성장하는 교회로 소문이 나고 열심히 하는 가운데 이러한 일이 생겼기 때문에 힘이 들었다. 하지만 이럴 때 일수록 할 수 있는 일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었다. 그래서 낮에는 전도와 밤에는 기도를 계속했다. 그러자 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5주년을 맞이할 때에는 특별회계 포함 2억 결산과 교회학교 포함하여 170여 명이 되었다.

교회가 부흥을 하면서 참으로 감사한 것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살아 계신
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예배하고 내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교회에 더 큰 위기가 왔다. 그것은 이단 신천지의 영향이었다. 한 가
정이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충성하고 열심을 더 냈다. 이
런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생각이 다름을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그 영향으로 많은 성도가 교회를 나갔다. 심지
어는 목사의 형제들까지도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 일부 인본적인 생각이 있
는 분들 중에는 형제들도 하나가 되지 않는 교회를 다닐 이유가 없다며 나갔
다. 이로 인해 교회 내에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역적으로 이단의 영향을 받
은 교회라고 소문이 나면서 전도가 되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건축하면서
대출받은 이자가 큰 부담이 되었다. 교회가 전체적으로 분위기와 의지가 꺾
이고 심지어 목사는 사람들을 만나기 싫을 정도가 되면서 크게 좌절하기에
이르렀다. 이 일로 식구들이 집에서 살지 못하고 교회 3층 사무실에서 1년여
동안 숙식을 하면서 기도하였다.

교회가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회복하는 데에는 5년여 시간이 힘들게 지났
다. 이 과정을 겪으면서 교회와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알면서도 아
무것도 할 수 없었다. 현상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했다. 성도들도,
목회자도 계속되는 침체기를 통해 회복하는데 힘이 들었던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와 떠도는 유언비어였다. 어찌할 수 없을 만큼 쪼그랑 앉았고, 철저히
당했던 것이다. 사단의 역사라고 생각하였다. 기도와 예배로 남아 있는 우리
부터 회복되어 주님이 이끄시고 주인 되시는 교회로 쓰임 받고 사용되어야
한다고 결의하고 회복을 구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 믿음을 보시고 다시
회복을 주셨고, 하나님께 쓰임 받고 최선을 다해 나아가게 하셨다.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임을
깨달았다. 개척 때부터 어떤 일이 있어도 철저히 예배를 통해 주님을 일하
시게 하는 최상의 예배를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

서도 바라보고 의지할 것은 주님의 역사하심이라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예배와 기도만큼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타협하지 않는다.

11주년을 맞이한 지금,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지는 못했다. 그리고 위기가 있었던 때부터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약진하기까지 몇 년이 걸렸다. 지금은 교회가 예전의 부흥의 때처럼 전도와 기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고, 온전한 예배 생활을 위해 성도나 목회자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 갈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교회가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들

첫째, 온전한 예배

예배는 공식적으로 365일 매일 새벽예배, 주일낮예배, 저녁예배, 수요일예배와 기관별로 교회학교통합예배, 청년부예배가 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새벽예배로 매주 교육부가 주관하여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는 자녀들도 새벽예배를 어려서부터 드리게 하여 훈련하고자 함이다.

예배 때마다 찬양을 30분 이상 하게 한다. 특히 찬양단은 1시간 이상 전에 모여 기도로 준비하고, 찬양을 통해 마음 문을 활짝 열어 주님을 만나도록 찬양한다. 특히 수요일저녁예배는 교회학교 자녀들을 찬양단으로 세워 부모와 함께 예배하게 하여 수요일예배의 출석을 도모하고 있다. 그리고 주일저녁예배 때에는 속회별로 특송을 하게 하여 더 많은 이들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게 한다.

이렇게 예배에 목숨을 걸고 준비하고 예배하게 하는 이유는, 예배를 통해서만이 주님을 만나고 죄를 씻고 삶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말씀 듣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본적인 예배를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못하면 다른 어떤 곳에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기도와 전도(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서 일하신다.)

매주 최소한 1회 이상씩 기관별로 기도하고 노방으로 전도를 나가고 있다. 그리고 영혼초청주일을 1년에 6월과 11월, 2회를 통해 전도대상자를 정하고 집중전도와 개별 전도를 하고 있다.

기도는 내 신앙생활을 온전히 유지하고 습관을 기르기 위해 매일 1~2회 교회에 방문하여 기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들이 새벽기도회 외에 퇴근 후 함께 와서 기도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매월 첫 주간은 고넬료기도회를 하고 있다. 고넬료기도회는 가족구원과 한 달도 믿음으로 살자는 취지로 하루 중 시간을 정하고 식구들이 함께 와서 기도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매월 셋째 주간은 릴레이 기도회를 하고 있다. 릴레이 기도회는 항상 그렇듯 가족들이 함께 나와 저녁 6시~11시 중 1시간씩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여 주님을 일하시게 하자는 취지로 릴레이로 한다. 저녁 시간이 안 되는 분들은 낮 시간을 통해 하게 한다. 그 외에 기도회는 금요심야기도회와 새벽기도회를 하고 있고, 성전을 매일 찾아와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한다.

셋째, 다음세대를 위한 사역

교회에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훈련하며 양육하고 있다. 이 일로 교회의 부흥을 도모하고 올바르게 온전한 신앙인으로 자라게 함과 시대에 영향력을 끼치고 리더십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사역에 모든 교회학교 자녀들이 함께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역은 어린이 부흥사로 사역하고 있는 문미순 사모가 전담하고 있다. 현재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 20여 명이 훈련받고 있다(자녀들만 훈련하면 안 되어서 부모도 같은 내용으로 함께 훈련하고 있다). 훈련 내용으로는, 먼저 말씀을 생활화하기 위해 매일 큐티(초등-예수님이 좋아요, 중고등부-새벽나라)를 하고 있고, 말씀을 필사하고 있다. 그리고 기도생활로는 부모와 매일 퇴근 후에 교

회에 와서 기도하기와 금요심야기도회를 참석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한다. 예배로는 교회학교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장년부 예배를 함께 참석하게 하고 있다. 악기연습도 한다. 전문적인 강사들을 통해 배우고 새로 들어오는 아이들에게는 후견인으로 연속성을 위해 가르쳐 주고 있다. 무엇보다 훈련 받는 학생들은 교회에서만 이 아니라 개 교회(부흥회), 캠프(21세기 교회학교 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예수 사랑캠프), 집회(연합집회, 수련회)를 참석하여 찬양인도를 하고 있다(감리교 여름성경학교 찬양올동 CD제작에 찬양 올동으로 함께 참석하였다. 총 6회). 그리고 해외사역(필리핀, 캄보디아)도 하고 있다.

넷째, 교회학교 아침예배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담임목사가 하고 있고, 방학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매일 하고 있는 일이다. 대상은 교회학교 유치부에서 중고등부까지 참석한다. 아침예배 내용은 요일마다 다르다.

월요일은 담임목사가 아이들 한 사람씩 축복기도 한다.

화요일은 기도훈련을 위해 중보기도 제목을 주고, 꿈을 위해 기도한다. 아주 진지하고 간절하고 특별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한 사람씩 전체가 자기 목소리로 기도한다.

수요일에는 말씀을 암송하고 암송한 말씀을 주일예배를 통해서 특송하기도 한다.

목요일에는 성경을 읽는다.

금요일은 한 주간을 정리하며 담임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함께 마무리 한다.

특히 교육을 하면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읽기 위해 쉬운 성경 MP3파일을 틀어 주고 몇 주간을 하루에 3~4장씩 읽기도 한다. 일반 성도보다 더 많이 읽기도 한다.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매 학기마다 체험학습을 내서 기독교 유적지와 박물관을 돌아본다.

이 일들은 아이들만 할 수 없다. 부모들의 절대적인 헌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출근하는 부모님들은 데려다 주고 출근하지 않는 부모들은 여건에 맞게 교회 차량 등으로 나머지 부분에 봉사한다.

다섯째, 선교

개척 때부터 힘이 들어도 꼭 하고 있다. 모든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일 텐데 우리 교회도 지역과 해외를 위해 기도와 후원을 하고 있다. 속회에서 후원할 선교지(미자립교회)를 정하고 매달 후원금을 보내고 있다. 교회에서는 해외 선교지와 국내 선교(다문화가정, 독거노인, 미자립교회)를 하고 있다.

제3성전시대

이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일이 있다면 끊임없이 내 신앙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일이라 생각한다. 제3성전시대라고 한 것은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가 성전이 되어 개인, 가정, 직장, 학교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빛을 발하고 살자는 의미에서 시작하는 일이다. 신앙생활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를 통한 죄 사함과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 나도 천국에 들어갈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도 교회가 계속해서 이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 부족하지만 약진하고 있다. 감사한 것은 교회 맞은편으로 430세대 아파트가 공사를 시작한 것이다.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고 있다.

2. 지원 사례

1) 목회자 지원 사례

(1) 목회자 격려와 네트워킹

① 비전교회와 함께하는 운동본부

2009년부터 연 2회 세미나를 통하여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을 격려하고 목회의 방향을 제시해 오고 있다. 회장인 김진호 감독의 설립기금을 토대로 “비전교회가 일어나야 한국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한다”, “지도자가 다시 힘을 내야 교회도 부흥할 수 있다”, “비전교회가 살아야 큰 교회도 건강하게 부흥한다.”는 모토 아래 몇몇의 개인 및 교회들의 후원으로 이루어진다. 세미나는 목회의 본질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강의, 목회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 그리고 작은 교회에서 건강하게 부흥하고 목회자의 간증 등을 강의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세미나를 통하여 격려와 방향 제시도 있지만, 매년 봄 호텔을 빌려 1박 2일로 열리는 세미나는 참여한 목회자들이 침체되었던 몸과 마음의 상태를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리고 참석자들이 서로 같은 상황과 사정을 나누며 연대하여 의지하고 격려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② 어깨동무 선교회-목회자 가정 세우기

신학교 동기생들로 이루어진 ‘어깨동무 선교회’는 2011년부터 연 1회 ‘작은 교회 목회자 부부 세미나’를 통해 위로와 격려 그리고 사감을 제공하고 있다. “목회자 가정의 회복되고 화목할 때 복음에 충실한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목회자 부부의 건강한 소통과 회복 그리고 섬을 제공하는 세미나는 작은 교회와 농어촌 교회 목회자 부부들을 위로하고 새로운 힘을 북돋아주고 있다.

이 세미나는 목회 기술이 아니라 목회원리를 함께 체득하고, 목회성공의 야망을 꿈꾸기보다 행복목회의 길을 제시하면서 멘토로 섬기는 목회자 부부와 멘티 목회자 부부가 함께 행복한 목회동행을 그려 나가는 시간이 된다.

③ 광림교회 솔트 플랜

2012년 비전교회의 자립과 성장을 위한 솔트 플랜(Salt Plan, Support, Alliance, Love, Trust)은 중소도시 교회가 자립하고 건강한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재정적 · 선교적 · 교육적 지원을 한다. 이 플랜은 개 교회 이기주의와 양적 성장주의에 물든 한국교회에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상생의 목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선교적 교회 성장의 모습을 보여준다. 매년 선발된 교회는 2년간 월 100만 원의 후원금 지원과 함께, 실천목회 세미나(8회), 해외석학초청 세미나(1회), 영국 웨슬리유적지 순례(1회)에 동참한다. 매 모임에는 김정석 목사가 강사로 나서 강의 및 목회의 실질적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이끈다.

특별히 광림교회가 지금까지 시행하며 효과를 거두었던 다양한 목회프로그램을 소개해 개체 교회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도우며, 광림교회에서 제작하는 제반 출판물과 성경공부 교재 등도 지원한다. 광림교회 각 선교구와 자매결연을 통한 전도대 파송, 여름성경학교 등도 아낌없이 지원한다.

참가한 목회자들은 광림교회의 솔트 플랜으로 기회를 얻게 되었고, 소명을 발견했으며, 사랑과 위로를 받는 시간이었음을 고백하며, 언젠가는 영향력 있는 강한 교회로 성장해 다른 교회를 세워주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다짐하기도 한다.

(2) 목회자 코칭과 네트워킹

① 서울남연회 목회 아카데미

연회 안에서 목회자들이 스스로 자신에게 부족하고 필요한 부분을 충족

하기 위해 시작된 모임을 연회적으로 목회지도력강화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지원을 한다. 200여 목회자 13개 소그룹으로 활동, 목회지도력강화위원회 산하 목회지원팀, 교육과 훈련팀, 미래목회개발팀, 비전교회지원팀 등 4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별히 비전교회 지원팀은 매달 50만 원의 재정적 후원과 2달에 한 번씩 정기적 교육 모임을 펼쳐가고 있다. 교육 모임은 선배 목회자들로부터 목회의 실제적 조언과 위로를 얻는 시간이다.

목회자간 소모임을 통해 많은 목회자들이 잃어버린 자존감과 자신감을 회복하고, 목회자로서의 자부심을 크게 세워나가는 시간이 되고 있으며, 연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② 경기연회 멘티-멘토

2015년 감독의 감독비를 바탕으로 하여 연회 안에 ‘더불어 비전교회 세우기 운동본부’를 발족하였다. 멘토와 멘티 결연을 통해 정책 사업으로 미자립교회를 세우는 일에 중점을 두고 시행한다. 연회 내 비전교회가 더불어 자립하고, 작지만 강한 강소형 교회를 세워가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38개 비전교회와 멘토 멘티 결연식을 통하여 멘토교회는 멘티교회를 위한 기도와 매월 30만 원 이상의 선교비를 지원한다.

③ 만나교회 MMP

2012년부터 미자립교회 지원 프로그램인 만나미션플랜(MMP)을 진행해 왔다. 자립 의지가 높은 교회를 뽑아 지속적인 맞춤형 지원을 한다. 선발된 교회에는 2년간 매월 100만 원을 지원하며, 다양한 만나교회의 사역을 소개하고, 목회적 코칭을 겸한다. 또한, 만나교회의 교구와 후원 교회를 연결하여 소그룹별로 주일예배에 참석하고, 여름행사를 후원하는 등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다.

또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가 진행하는 각종 정기모임에도 참여 가능하다. 정기모임에서는 만나교회의 7대 사역(예배, 중보기도, 교육, 나무공동체, 가정, 나눔, 선교)을 전문 사역자들과 공유할 수 있다. CTS 기독교TV가 주최하고 한국교회방송기술인연합회가 주관하는 미디어 컨퍼런스에 참여할 수 있다. 이 컨퍼런스는 사역과 미디어의 관계를 알아보고, 사역과 접목할 수 있는 배움의 장이다.

이와 함께 매년 열리는 웨슬리펠로우 컨퍼런스에 참여할 수 있고 젊은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강연을 제공받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가족 수양회에서는 가정의 회복과 연합의 기회를 제공한다.

마지막 모임은 연말 교역자 회의로 MMP에 선발된 각 교회의 결산을 보고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정기모임을 통하여 만나교회와 비전을 나누고, MMP선발 교회 목회자들은 서로 돕는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 외에 만나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영성훈련 프로그램(BTD, MDTs)에도 참여할 수 있다.

MMP의 특징 중 하나는 ‘일일선교’이다. 현지 교회 실정에 맞게 진행하며, 주민 어르신들을 모시고 마을잔치를 진행한다. 이미용, 얼굴팩, 네일아트, 케이크 제작, 전도 등의 이벤트를 통해 마을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연출할 기회를 제공한다.

MMP 교회의 특산물을 만나교회 교인들에게 판매하면서 MMP 교회의 재정에 힘을 실어 주기도 한다. MMP 교회 이름으로 지역에 바자회 물품과 인적 자원을 지원해 교회의 이미지를 높이기도 한다.

④ 상계교회 리메이크교회부흥세미나 모델

2006년 ‘미자립교회를 자립화하여 한국교회를 살리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목표 아래 한국의 모든 미자립교회를 자립화하는 사역을 해 오고 있다. 매년 2월 초교파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리메이크교회부흥세미나’를 개최하여 마지막 시간에 참석한 교회들 중 추첨을 통해서 각 권역별로 70개 미

자립교회를 선정한다. 선발된 이들을 대상으로 3월~12월까지 매월 목회코칭세미나로 훈련한다.

세미나는 △자립 △전도전략 △설교 △소그룹 훈련 △아웃리치 △예배 △성경공부 등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된다. 강의 후에는 신청자 2명씩 조별로 설교 클리닉을 진행하고, 이후 서길원 목사가 진행하는 설교 클리닉을 받게 된다.

전월 전도 점검 및 교회별 맞춤형 원포인트 코칭 시간에는 각 교회의 환경에 따른 실질적 목회 노하우를 전한다. 또한 상계교회의 소그룹(속회)과의 자매결연으로, 서길원 목사의 일일부흥성회, 노방전도, 성경학교 지원 등도 나서고 있다.

참여하는 교회에게는 매달 소정의 전도지원금과 각종 기계류(팝콘, 봉어빵, 솜사탕, 와플, 빙수), 물티슈, 커피티슈, 잡곡, 소금, 건빵(기타 교회별 꼭 필요한 물품 대체) 등 전도용품을 지원한다.

이에 장년 40명 이상 자립화 운동으로 해마다 훈련교회들의 20%의 자립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지역별 자립화한 교회들과 미자립교회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연대부흥을 이루며 꾀하고 있다.

2) 교회 지원 사례

① 예배자 파송 사례

선한목자교회는 흠어지는 교회, 지역의 작은 교회들과 함께 성장하는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것을 분명히 하여 파송선교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분립한 개척 교회와 형제 교회 중에 한 교회를 선택하여 일정기간 동안 그 교회의 교인으로서 예배와 헌금, 봉사, 중보기도 등의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정하도록 하여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한다.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파송하며 본인 희망 시 재파송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정

식으로 이명해 갈 수도 있게 하고 있다. 특히 최소인원(10명)이 신청하지 않아 부족한 교회에는 취임연수가 오랜 순으로 권사 집사 순으로 이동을 권면한다. 장로는 우선적으로 파송선교사가 적고 사역이 어려운 교회로 파송신청하기를 권면한다.

② 자비량 부흥회 인도

개척 교회나 미자립교회들은 부흥회를 통한 은혜의 기회를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강사를 모시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에 목회를 하면서 받은 은혜와 경험을 나누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미자립교회를 찾아가 자비량으로 집회를 하며 미자립교회 목회자를 찾아가 은혜와 용기, 격려와 위로를 전하고 있다. 은퇴한 광전태 감독, 김진호 감독을 비롯하여 협성 부흥단장은 취임사를 통하여 재임기간 중 미자립교회에 자비량 부흥회를 하기도 하였다.

③ 교회 건물 리모델링

본부 사회평신도국은 재능기부운동과 청장년선교회의 기술자원봉사 사역을 결합하여 평신도주일 기념사업으로 전개한 ‘비전교회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침체된 미자립교회에 활기를 주고 있다. 이 외에 여러 기관 교회들이 미자립교회의 건물을 수리하거나 지원함으로써 예배의 분위기를 살리고 목회자에게 격려와 힘이 되고 있다.

④ 특성화 프로젝트

중앙연회 ‘비전교회 특성화 프로젝트’는 지역사회의 환경에 맞춘 선교비전을 계획 중인 교회 중, 어느 정도의 지원만 있으면 모범적으로 교회 성장을 이룰 수 있겠다고 판단되는 교회를 선정하여, 그에 따른 시설, 리모델링, 임대 등을 후원하여 개 교회의 성장을 돕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즉, 어려운 교회 건물을 보수해 주는 리모델링 사업과 특성화된 목회의 비전을 합쳐

놓은 새로운 형태의 리모델링 사업으로서 지역사회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형식이다. 그 예로 개 교회에서 계획하는 ‘커뮤니티센터’(community center)와 모세도서관 개관을 지원하였다.

⑤ 남부연회 집중 지원 모델

성장 가능성 있는 개척·비전교회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세부적으로는 △각 지방 코치 활동 위한 정보 제공 및 필요 행정 제반 사항 지원 △개척·비전교회 필요 전도 용품 및 선교비 지원 △각 지방 선교부 총무 초청 간담회, 교회 개척 및 비전교회 성장 위한 필요 의견 청취 및 정책 반영 △연 2회 교회개척성장학교 실시, 준비된 개척자 양성 및 개척 교회 성장을 도모하며 인근 연회와 연대를 도모하기도 한다.

⑥ 강동지방 대명교회 - 개척선교회

구령열 ⇨ 근검절약 ⇨ 개척선교회 창립 ⇨ 교회 증식

1987년 창립 7주년을 맞이하여 받는 교회에서 주는 교회로 체제를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창립 7주년부터 창립 기념교회를 매년 개척하기로 하였다.

1982년 목사 안수를 받고나서 40일 금식기도를 하다가 한 사람이 매달 1만 원씩 헌신해도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면 큰돈이 모일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렇게 생겨난 슬로건이 “1만 원으로 1교회를 세우자”는 것이었다. 한 구좌에 1만 원을 기본으로 여러 성도가 적극적으로 참여한 덕에 기금이 마련되고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1990년 창립 10주년을 바라보면서 새벽에 기도하다가 “여호와 하나님! 너희를 현재보다 천 배나 더 하신다.”는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다. 계산해 보니 당시 4교회를 개척하여 본 교회까지 5교회였다. 그리고 5교회의 재적인원이 줄잡아 1,000여 명, 5교회에 1,000배를 더해 보니 5,000교회가 나왔고, 1,000성도에 1,000배를 더해 보니 100만 성도가 나왔다. 이것을 5,000교회를

개척하여 100만 영혼을 구원하라는 선교대명으로 받아들여 1990년 8월 교회 창립 10주년 기념주일 때 5,000교회 100만 신도운동을 선포하고 추진하게 되었다.

교회 예산의 50%를 개척 교회 설립비로 성별하기 위하여 교회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였다. 담임목사 생활비 및 목회 활동비를 전년도 대비 50% 이상 스스로 삭감, 10년 동안 담임목사 승용차를 안 갖기, 10년간 유급직원의 상여금 제도 없애기, 강단 꽃꽂이 없애기, 각 기관 재정 자립, 모든 봉사자는 무보수 봉사원칙.

1991년도에 국내외 10교회를 개척하였다. 1년 예산의 절반을 쏟아 부은 결과였다. 5,000교회 운동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대명교회에서 개척지원한 국내 교역자들을 비롯하여 20여 명의 동역자들이 가칭 대명개척선교회 발기 위원회를 구성하여 1991년 12월 12일 개척선교회를 창립하였다. 20여 교회로 시작한 개척선교회는 개척은행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회원교회들이 매월 현금한 선교비를 모아서 개척하는 교회에 선교비를 지원한다. 선교비를 지원받은 교회는 선교비를 지원받는 1년 후부터 만 5년 동안 이자 없이 원금만 상환하도록 하고 있다.

개척선교회는 부설 SOS은행을 설립하였다. SOS은행 1구좌는 1천 원이다. 1천 원이면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교역자 1가정을 살릴 수 있다. SOS은행은 소액(1,000,000원) 50개 월 무이자로 지원한다. 2017년 12월 현재 약 150,000,000원을 150교회에 긴급 지원하였다.

개척선교회는 2017년 12월 현재 1,400교회와 850명의 평신도 회원이 국내외에 1,400교회를 개척하거나 지원하였다.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늘아래 가장 효과적인 선교 방법이라는 말이 있다. 1만 원으로 1교회를 세울 수 있다. 5대양 6대주 마을 마을마다 교회를 세우자.

1만 원으로 1교회를! 1천 원으로 1가정을!
 성도는 교회를 세워서 영원히 산다!
 5,000교회를 세워서 100만 영혼을 구원하자!
 날마다 눈만 뜨면 1교회를 세우자!
 5대양 6대주 마을 마을마다 교회를 세우자!

3) 통합적 지원 사례

① 충청연회 비전살리기 사업

2014년부터 시행한 이 사업은 미자립교회가 지역에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재정적 · 목회적 · 인적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현장 중심 사례를 전하는 세미나와 목회코칭과 조별 멘토링을 통해 교회의 실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먼저 매년 심사(1차 서류, 2차 PPT발표)를 통해 선발된 20여 개의 교회에 40만원의 후원금(선교비 30만 원, 전도비 10만 원)을 매월 지원하며, 전도, 목회, 제자 훈련 등의 주제로 목회세미나와 더불어 개체교회의 상황에 맞는 교회성장 프로그램들을 소개하여 적용하게 함으로써 실제적인 교회의 자립을 돕고 있다.

매월 실시하는 코칭세미나를 통해 목회자 부부가 함께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적 상황(도시지역, 농촌지역, 신주거지역, 구도심지역 등)이 비슷한 교회들로 조별 멘토링을 진행함으로써 적절한 필요와 도움을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이렇게 만들어진 목회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율적인 교회 간 연합 전도와 사업들이 만들어져 더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여름이 되면 후원교회와 연회 차원에서 청년 아웃리치와, 노인잔치 등의

인적 지원을 함께 제공하여, 종합적인 지원을 통한 미자립교회의 성장을 돕고 있다.

② 사랑의 씨앗심기 - 대전 산성교회

각 가정을 방문하거나 교회에서 현지 교회 교인 및 교회 주변 마을 어르신들의 사진을 촬영하여 현상 후 현지 교회에 전달하여 현지 교회에서 전도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현지 교회 축구팀과 친선 축구경기를 통해 좋은 관계를 맺고 앞으로의 사역에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며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준비 사역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과 활동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여름성경학교, 영어캠프를 실시한다. 현지 교회에서 선정하는 전도대상자들을 중심으로 보수가 필요한 집에 사시는 분들의 집을 수리해 주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 현지 교회 교인들과 연합해 전도폭발을 중심으로 시내 전역으로 전도를 함으로써 지역 교회의 전도사역자들을 세우고, 전도폭발 사역을 소개하고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한다.

그 밖에 의료봉사, 이마용봉사, 경로잔치, 문화공연 및 영화 상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미자립교회가 속한 지역 사회를 섬기고 있다.

③ 아가페 여주 - 여주중앙교회

여주 지역의 미자립교회 및 교회 주변 마을에 대한 지역 교회 이미지 개선사업으로 미용, 시설, 전기, 교육, 농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자립교회와 마을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분야에 맞추어 사역을 펼쳐나가고 있다. 이 일을 통하여 미자립교회와 지역 마을과의 협력과 연합의 좋은 기회를 제공하며, 이 사업을 통하여 여주중앙교회 안의 성도와 성도 간의 사역을 통한 연합의 계기가 되었다. 또한 자신의 사명을 발견함으로 성장과 성숙을 이루고, 섬기는 신앙으로 신앙 훈련과 성장의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IV. 정책적 접근 -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앞서 언급한 미자립교회 정의는 시혜적인 측면에서 범위를 정한 경향이 있다. 그러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목회자의 세대교체 과정에서 다양한 변수들로 인해서 중형 교회들이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중형 교회가 무너지는 현실에 대하여 “중형 교회는 대부분 지역에서 탄생했고, 역사가 50~60년 정도 됐는데, 60년대 어려울 때 교회가 생겼고 70~80년대 인구가 서울로 몰려들 때 성장했고, 80년대 안정되면서 1세대가 은퇴했고, 90년대부터 2세대로 바뀌면서 인구는 줄고 지역사회가 무너지고 2000년 대 들어서면서 극심하게 무너졌던 것”³⁾이라는 지적은 중형 교회의 현실을 한마디로 나타낸다. 문제는 미자립교회를 지원하던 이들 중형 교회들의 쇠퇴로 미자립교회를 위한 시혜적인 정책의 한계가 왔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정책은 시혜적 차원을 넘어서서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본 자료집에서는 재정적인 한계보다는 교회로서의 역할 수행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 본질적인 측면에서 교회가 어디에 있는가를 살피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고자 한다.

경제적 여유가 없어도 제 길에 서 있다면 자립이요, 여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길에서 벗어났으면 아직 미자립이라는 다소 파격적인 생각의 전환이 절반에 해당하는 미자립교회 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황병배 교수의 논문 일부를 통하여 선교적 교회를 방향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3) 조성돈, ‘중형 교회의 현실과 미래-중형 교회 25인 심층인터뷰 분석’ 목회사회학연구소, 2017 한국교회 심층연구 세미나 한국교회 마지노선 중형 교회, 2017 11.1. 재인용

1. 교회는 선교 공동체이다

2천 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교회 안에서 선교적 교회에 대한 담론이 빠르게 확산되었다. 몇 가지 이유들을 들 수 있는데 첫째, 한국교회의 심각한 정체와 쇠퇴 때문이다. 한국교회는 1980년대까지 빠르게 성장하였다. 전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빠른 성장이었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가파른 양적 성장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주춤하더니 2천 년대 초부터는 본격적으로 정체와 감소의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⁴⁾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교회는 교회성장 이론과 자연적 교회성장 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고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즉 ‘어떻게 해야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가?’ 보다는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고 교회는 세상에서 무엇으로 존재해야 하는가?’에 더 집중하게 된 것이다. 마침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던 선교적 교회에 대한 담론이 한국선교신학자들을 통해 한국교회에 소개되면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둘째, 교회의 세속화 때문이다. 이것은 한국교회의 신뢰도 추락⁵⁾과 교인수 감소와 깊은 관계가 있다. 한국교회는 선교 초기부터 사회개혁의 중심에서 있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이후 독재정권의 치하에서도 한국교회는 핍박받는 자들과 소외당하는 자들과 함께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1970년대 빠른 경제성장과 함께 한국사회에 팽배해진 물질숭배사상을 한국교회가 제대로 비판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러한 물질만능주의가 교회 안으로까지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방치했다. 그 결과 교회의 세속화가 가속화되었고, 교회들은 점점 더 크고 화려한 외형을 갖추어 갔지만, 사회로부터의 신뢰도와 대

4) 미래학자 최윤식은 2050-60년경에 가면 한국교회 교인수가 약 400만 명으로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최윤식, 『2020-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3), 39; 강병오, 한국개신교의 사회적 신뢰 실추 원인과 대책, 『신학과 선교』 제41집 (2012): 63.

5) 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13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 자료집」 (2014): 16; <http://blog.naver.com/ujmiso/220996185305> (2017.05.30.)

사회적 영향력은 크게 감소되었고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반 기독교적 정서가 빠르게 확산되었다.⁶⁾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선교적 교회론에 대한 관심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물론 선교적 교회론이 과거 교회성장이론이나 자연적 교회성장 이론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이전의 교회성장학과 자연적 교회 성장학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임에는 틀림없다.⁷⁾

셋째, 교회의 양극화 현상 때문이다. 통계에 의하면, 전체 한국교회에서 미자립교회의 비율이 약 60%에 이른다.⁸⁾ 최근에 감리교 국내선교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감리교회의 미자립교회 수는 2,920개로 전체 감리교회의 약 47%에 이른다. 감리교회는 미자립교회를 연경상비 3,500만 원 이하로 규정한다. 문제는 그 교회들 가운데 연경상비 1,500만 원 이하의 교회들이 50%를 넘는다는 것이다.⁹⁾ 재정적으로 자립선을 넘었으나 겨우 현상유지만 하는 도시교회들도 상당히 많으며 대부분의 농촌교회들은 미자립교회이거나 작은 교회들이다. 최근에는 교인들이 소형 교회에서 대형 교회로 이동하는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대형 교회는 시설, 인적자원, 재정에서 풍요롭지만, 소형 교회는 모든 면에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 이것은 한국교회들 간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¹⁰⁾ 특히 한국교회는 개교회주의가 강하다. 내 교회만 성장하면 된다는 사고가 오랫동안 한국교회를 지배해 왔다. 이러한 개교회주의는 개체 교회의 양적인 성장에는 공헌했을지 모르나, 개체 교회들 간의 협력과 연합은 상대적으로 약화시켰다. 또한

6) 김승호, 한국교회성장정체성원인분석과 대책에 관한 연구, 「개혁논총」 제19권 (2011): 223-228; 남태욱, 21세기 한국교회 갱신을 위한 윤리적 과제: 2008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를 중심으로, 「성경과 신학」 제53권 (2010): 178.

7) 이후천, 선교적 교회론과 한국교회 선교, 「선교신학」 제43집 (2016): 145.

8) 신호균, 한국교회의 양극화 현실과 실천적인 해소방안에 관한 탐색적 접근, 「로고스경영연구」 제5집 (2007): 7.

9) 감리교국내선교부 자료 참조.

10) Ibid., 7-17. 유광석, Daniel Connolly, 김원기, 한국 대형 교회의 '사사회'에 관한 재해석: 새로운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종교와 문화」 제28호 (2015): 63-64.

한국교회의 양극화 현상은 한국교회의 작은 교회들과 그 목회자들에게 패배 의식과 열등감을 불러 일으켰을 뿐 아니라 대형 교회와 소형 교회 간의 연합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선교적 교회론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나라(Kingdom of God)와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 신학이 자리 잡고 있다. 이 관점에서 보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선교의 중심에도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것이다. 즉, 선교의 주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며, 하나님 선교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통치)이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선교 신학이 개 교회 성장주의에 빠져 더 큰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지 못하는 한국교회들에게 도전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한국교회의 게토(ghetto)화 때문이다. 한국교회는 1980년대 이후 한국사회로부터 지역사회 안에 있으면서도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한 관심과 해결요구를 외면한 채 자기들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집단’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¹¹⁾ 교회가 개인의 영혼구원과 교회개척 및 확장에만 몰두하고 지역사회의 문제들은 외면하는 것으로 비쳐져 왔다. 그래서 불신자들 중에는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다.”라든지 “한국의 지역교회는 지역사회에 전도는 하지만 지역사회에는 관심이 없다.”는 말을 공공연히 할 정도가 되었다.¹²⁾ 그리고 이것은 교회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반 기독교적 정서를 더욱 강화시키는 악순환을 불러왔고, 교회가 지역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되고 단절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반면에 선교적 교회는 자신을 하나님이 세상으로 보내신 파송 공동체로 이해한다. 여기서 세상이란 타 문화권만이 아니라 지역교회가 서 있는 지역사회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선교적 교회론에서는 지역사회가 매우 중요한 선교지이며 지역사회에 대한 연구는 필수적이다.

11) 남태욱, 21세기 한국교회 갱신을 위한 윤리적 과제: 2008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를 중심으로, 『성경과 신학』 제53권 (2010): 180-181.

12) 한국일, 선교적 교회의 실천적 모델과 원리, 『선교신학』 제36집 (2014): 359.

이를 근거로 선교적 교회는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지역사회의 총체적인 필요를 통전적인 복음으로 응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이러한 선교적 교회론의 일면이 지역사회와의 단절을 극복하고 더 긴밀히 소통하고자 하는 한국교회에 크게 어필했다고 하겠다.¹³⁾

2. 선교적 교회의 핵심요소 – 7기둥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 공동체(ecclesia)로, 그 부르심의 목적은 그들을 다시 세상 속으로 파송(mission)하기 위함이다.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인 것이다. 이 파송 공동체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실현해 가는 것을 가장 근원적인 사명으로 삼는 선교적 공동체이다.¹⁴⁾ 이런 의미에서 선교는 교회의 한 기능이 아니라 본질이고 존재이유이며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다.¹⁵⁾ 그러므로 선교와 교회는 절대로 분리될 수 없으며, 이 땅에 존

13) 한국일은 한국적 상황에서 선교적 교회에 대한 논의가 한국교회에 주는 의의를 다음과 같이 열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현재 침체되어 있는 한국의 지역교회들에게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다. 둘째, 지역 교회가 지역사회와 새로운 관계를 열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셋째, 한국교회의 신뢰도를 회복시킬 것이다. 넷째, 선교지형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공할 것이다. 다섯째, 지역교회들이 개 교회주의를 극복하고 서로 협력하게 할 것이다. 여섯째, 지역교회들이 더 폭넓고 다양한 선교사역에 참여하도록 도울 것이다. 일곱째, 평신도들이 더 적극적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선교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여덟째, 목회자에게는 선교적 리더십에 대한 통찰을 줄 것이다. 아홉째,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고 지역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생명력 있는 지역교회가 되게 할 것이다. 열째, 통일 후 북한지역을 복음화하고 지역사회개발에 기여하는 교회모델을 제공할 것이다. 한국일, 선교적 교회의 실천적 모델과 원리, 「선교신학」 제36집 (2014): 358-362. 이후천도 선교적 교회에 대한 담론이 한국교회에 기여한 점들을 1) Missio Dei 신학의 통전적 해석, 2) 교회성장론과 건강한 교회론의 대안적 성찰, 3) 지역사회에서 교회의 사명과 역할에 대한 재각성, 4) 국내전도와 해외선교의 이분법적 구별을 극복, 5) 신학교육의 방향성과 콘텐츠에 대한 역사적, 신학적 자기반성의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보았다. 이후천, 선교적 교회론과 한국교회신교, 「선교신학」 제43집 (2016): 137-160.

14) Darrell Guder, *Missional Church: A Vision for the Sending of the Church in North America*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 1998). 4.

15) Leslie Newbigin, *The Reunion of the Church* (London: SMC Press, 1948), 11.

재하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언제나 선교적이어야 한다.¹⁶⁾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선교적 교회를 세워 나갈 수 있을까?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 꼭 있어야 할 7개의 필수요소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냄 받은 공동체(the sent community)로서의 교회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를 에클레시아, 즉 ‘부름을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것은 모이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강화시켜서 지역 교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 모으는 일에 전력을 다하게 했다. 그러나 이러한 교회 이해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보내심의 교회’ 혹은 세상 속으로 ‘흩어지는 교회’를 상대적으로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결국 모이는 교회로서의 성장은 이루었지만, 교회가 서 있는 지역사회는 잃어버리게 되었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교회가 전도는 하지만 지역사회에는 관심이 없다는 혹평을 듣게 되었다. 무엇보다 지역사회를 위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일에 실패하여 세상(지역사회)으로 보냄을 받은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다. 선교적 교회는 이러한 이분법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선교적 교회는 부름받은 교회(ecclesia) 위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간과했던 보냄 받은 교회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선교하시는 하나님 –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을 ‘파송하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한다. 선교학자 데

16) David Bosch, *Transforming Mission: Paradigm Shifts in Theology of Mission* (Maryknoll, NY: Orbis Books, 1991), 372-373.

이빛 보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늘 교회를 세상 속으로 보내신다고 했다. 이것은 ‘선교의 주체가 누구인가?’와 관련된 문제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가 선교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 경우 선교의 주체는 교회가 된다. 그러나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시기 때문이다. 교회가 선교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라는 생각,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의 핵심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교회는 선교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대행자이다. 교회는 복음의 목적이나 목표가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중요한 도구이며 증거이다. 선교가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선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셋째, 선교지로서의 지역사회(Local community as mission field)

선교의 주체이신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신다. 선교적 교회는 그 세상을 ‘지역사회’(local community)로 본다. 지역사회가 하나님이 교회를 보내시는 선교지(mission field)인 것이다. 지역사회를 선교지로 새롭게 인식하게 된 계기는 선교적 교회의 담론을 시작한 레슬리 뉴비긴의 뼈저린 경험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가 35년간 인도에서의 선교사역을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세속화와 다원주의의 영향으로 빠르게 탈 기독교화되어가는 영국사회와 맞닥뜨리게 된다. 영국사회가 복음이 필요한 선교지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뉴비긴은 서구 기독교 사회의 붕괴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개 교회들이 서 있는 지역사회를 선교지로 규정한 후, 교회는 지역사회로 파송된 선교 공동체라고 주창한다. 선교적 교회에게 선교지란 해외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지역교회가 서 있는 지역사회가 곧 선교지인 것이다.

넷째, 통전적 선교사역(Holistic mission)

이것은 세상(지역사회)으로 파송 받은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선교적 교회는 지역사회로 보냄을 받은 교회들이 통전적 선교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해야 한다고 믿는다. 통전적(統全的)이라 함은 ‘전체를 하나의 큰 줄기로 통합하고 큰 통에 담는다.’는 의미로, 개인의 영혼구원과 사회구원, 복음선포와 사회참여를 서로 대립적인 것으로 구별하지 않고 모두를 하나로 포괄하는 총체적인 선교를 의미한다. 오랫동안 한국교회 안에서 두 입장이 대립되어 왔다. 에큐메니컬과 복음주의이다. 에큐메니컬은 교회의 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결과 개인구원과 복음증거에 대한 관심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고, 복음주의는 개인구원과 복음증거를 강조한 결과 대 사회적 책임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¹⁷⁾ 선교적 교회는 이 둘을 하나로 통합하여 하나의 사역으로 인식하고자 한다. 교회 역사에서 이러한 통전적 선교를 가장 잘 실천했던 인물이 존 웨슬리이다. 그는 복음전도를 통한 개인의 영혼구원과 사회악의 문제해결을 통한 사회구원을 늘 함께 생각했다. 그에게 성화는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사회적이고, 신앙의 본질은 내면적이지만 신앙의 증거는 사회적이었다. 따라서 웨슬리의 감리교 운동은 개인적 성화와 사회적 성화를 포괄하는 통전적 선교 운동이었으며, 이러한 웨슬리의 통전적 선교 실천은 오늘날 한국의 교회들에게 깊은 선교적 통찰을 준다.

다섯째, 하나님의 나라(Kingdom of God)

이것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선교적 교회의 목표와 관련되어 있다.

17) 양낙홍, “세계교회협의회(세계교회협의회)의 선교신학 분석과 평가”, 『선교와 신학』 제28집 (2011): 226.

하나님의 선교의 최종 목표는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한다. 따라서 선교적 교회는 이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한다. 이원론적 사고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로만 이해한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가 천국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해한다. 이런 관점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 개념을 약화시키며, 교회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일에만 몰두하게 하고 세상에 대한 관심을 매우 약화시킨다. 예수가 선포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였다. 그 나라는 미래에 경험할 하나님의 나라이면서 동시에 지금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모두 포함하고 있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선포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지만, 우리의 삶과 실천을 통해서 이 땅에 실제적으로 실현되는 하나님의 통치이다. 따라서 선교적 교회는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통치)를 추구한다.

여섯째, 선교적 교회의 구조 - 한 백성이 함께 이끌어 가는 구조(Laos-Driven Structure)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이끌어 가는 팀 리더십의 구조를 가진다. 초대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백성(λαος του θεου) 가운데 지도자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팀 리더십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중세에 들어서면서 교회 내에 성직자 그룹과 평신도 그룹이 생겨나고, 이것이 중세 1천 년을 거치면서 더욱 확고해져서 오늘날 대부분의 전통교회가 가지고 있는 목회자와 평신도 간의 명확한 구분으로 이어진 것이다. 그러나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은 사역 기능에 따른 구분이지, 본질상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존재론적인 구분이 아니다. 선교적 교회는 목회자와 평신도 사이의 존재론적 이분법의 긴장 구조를 배격한다. 목회자의 성직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목회자의 특권과 권위만을 강조하지 않는다. 목회자나 평신도나 모두 하

나님의 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은 사역자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교적 교회는 목회자가 평신도 사역자들과 함께 사역을 이끌어가는 수평적 파트너십 구조를 추구한다. 이러한 파트너십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교회 안에 꼭 있어야 할 것이 ‘제자훈련과정’이다. 이 과정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과정이며, 성도는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팀 리더십을 함께 공유하는 훈련을 받으며 교회의 언약그룹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렇게 선교적 교회의 구조는 목회자와 평신도 사이의 팀 리더십을 구축하고 평신도가 자신의 은사를 따라 선교사역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교회안팎의 총체적인 필요에 효과적으로 응답하게 한다.

일곱째, 선교사로서의 하나님 나라 백성(God's missionary people)

선교적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들은 교회 안에만 머무르면서 구원받았다는 안도감에 자족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교회 밖 세상으로 나아가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는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선교사들이다.¹⁸⁾ 이들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온전히 드러낼 때,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견고히 서게 될 것이다.¹⁹⁾ 앞에서 언급한대로 한국교회는 오랫동안 교회중심, 성직자 중심의 문화를 만들어왔다. 성도가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보다는 교회에 얼마나 열심히 다니느냐가 신앙의 정도와 수준을 측정하는 기준이 되어 왔다. 교회 안에서도 대부분의 일들이 성직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평신도들은 주변인으로 인식되거나 부차적인 조력자로 인식되어 왔다. 그 결과, 성도가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든 상관없이 교회만 열심히 나와서 자리만 채워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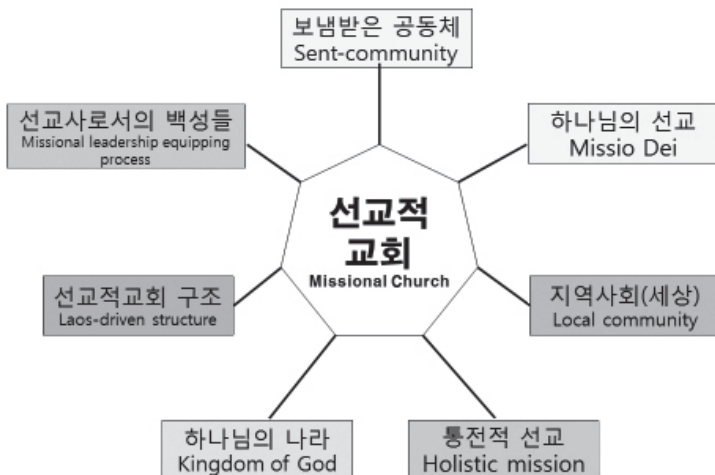
18) Craig Van Gelder & Dwight J. Zscheile, *The Missional Church in Perspective*, 153-154.

19) Kim Hannond & Darren Cronshaw, *SENTINESS*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2014), 46.

면 된다는 식의 잘못된 생각이 한국교회를 오랫동안 지배해 온 것이 사실이다. 선교적 교회는 이러한 교회 중심적이고 성직자 중심적인 이분법적 사고를 배격한다. 선교적 교회는 성도를 교회 안에 가둬두지 않는다. 오히려 성도 각자 자기들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함께 추구하기를 원한다. 선교적 교회의 평신도들은 세상 속에서 교회됨을 드러내며 살아야 하며, 그들의 사역은 예배당 안에서의 봉사를 넘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확장되어야 한다.²⁰⁾

요약하면, 선교적 교회는 교회의 선교적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선교 공동체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통치)를 위해 통전적 선교사역을 수행하는 사명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선교적 교회의 7가지 핵심요소를 보여준다.



20) 최동규, “선교적 교회의 평신도들을 위한 사도직 이해”, 『선교신학』 제41집 (2016): 455.

V. 나가는 말 - 미자립교회 문제해결을 위한 제언

1. 한 영혼 사랑하고 한길 가는 목회 - 아낌없이 퍼 주는 나무

“불려주는 데가 있으면 자전거 타고라도 갈 수 있지만, 불려주는 데가 없으면 벤츠가 있는 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재정적으로는 미자립이 아니라, 일평생 마이너스 목회한 어느 목사가 귀한 일에 쓰라고 강사료를 반납하면서 한 이야기이다. 물론 그는 물려받은 재산이 있었다. 직장인 아내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복지 정책이 활성화되기 훨씬 이전부터 물려받은 재산 털어 집을 장만하여 오갈 데 없는 노인들의 공동생활주택으로 사용하며 노인들을 봉양하였다. 선교사 시절 알게 된 외국의 어린 학생들을 데려와서 훌륭하게 키워서 그들이 지금은 후원자가 되었다. 지금은 기관과송도 못 받는 난민후원 사업을 하고 있다. 그저 닥치는 대로 도움 요청하는 사람들을 돕다 보니 여러 곳에서 귀한 사역을 펼쳐왔다. 말 그대로 그에게는 벤츠는커녕 경차도 하나 없다. 그저 자전거 타고 대중교통 이용하며 다니고 있다. 제대로 된 목회 한번 못 해 봤다지만 분명한 것은 한 영혼 사랑하고 한길 가는 목회였다. 아낌없이 퍼 주는 나무처럼.

미자립이라는 굴레만큼이나 무거운 짐 지고 고생하는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다. 맡겨진 양 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핀다면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을.

“네 양 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 소 떼에게 마음을 두라”

- 잠27장 23절 -

2. 분명한 비전과 사명을 가진 교회

눈을 가리고 걸으면 누구도 한 방향으로 똑바로 걷지 못한다. 20미터 정도 걸으면 목표방향과 4미터 정도의 차이가 생기며 100미터 정도를 가게 되면 큰 원을 그리며 돌고 있는 것이 드러난다. 등산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독일어로 링반데룽(Ringwanderung; 윤행방향)이다. 교회란 무엇인가? 규모가 크나 작으나 분명한 비전이 있어 사람들을 인도하는 교회는 성숙한 교회이다. 성숙을 향해 가는 길은 비록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미자립의 길이 아니다.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인 것이다. 이 파송 공동체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실현해 가는 것을 가장 근원적인 사명으로 삼는 선교적 공동체”²¹⁾라는 사명을 수행하는 교회가 진정한 자립을 넘어서 성숙한 교회라고 본다.

3.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교단

미국 군인들이 생각하는 위험한 임무 1위는 Para Jumper라고도 불리는 파라레스큐로서 적진 한가운데라도 낙하산을 타고 내려가 부상을 당하거나 고립된 병사들을 구출하는 미공군 특수부대이다. 이들은 홀로 임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다고 한다.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은 더욱이 특별한 훈련 없이 별로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중형 교회가 무너져 가는 현실에 이들의 생존율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21) Darrell Guder, *Missional Church: A Vision for the Sending of the Church in North America*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 1998). 4.

혈관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혈액과 조직 세포 간의 물질 이동은 대부분 모세혈관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모세혈관이 막혀 통하지 않게 되면 병이 든다고 한다. 대부분의 큰 질환들은 큰 혈관에 문제가 발생하기 전 작은 모세혈관에서부터 문제가 쌓이며, 모세혈관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 동맥과 정맥에 문제가 생기고 동맥과 정맥에 문제가 진행되었을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사태가 되고 만다고 한다. 47%를 차지하는 미자립교회는 교단의 모세혈관과 같이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본다. 이들의 쇠퇴는 이들로부터 수평이동을 통해 성장을 하던 대형 교회나 교단의 쇠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우려된다.

따라서 지방적으로나 연회 혹은 교단적으로 이들에 대한 보다 더 큰 관심과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1) 교단적으로는 신학교 교육과정에서부터 실제적인 목회 훈련과 목회리더십 등 목회자 자기 개발의 동기부여와 교육이 필요하다.

2) 현행 수련목의 기간을 연장하여 다양한 경험을 쌓게 하여 부교역자를 키우는 방안과 큰 교회 수련목으로서 활동하는 동안 임상목회 교육식의 교육 및 지역의 미자립교회로 연 1교회로 순환하여 2교회 정도 파송하여 미자립교회의 인력지원 및 현장 경험 쌓은 후 개척후보지나 선교사 등으로 파송하며, 목회자 안식월 실시 및 연장교육과 DTS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3) 초기 목회자 및 미자립교회 담임자 교육 강화다. 개척성장학교 같은 기관을 통하여 실제적인 훈련을 받은 후 목회에 임하도록 연회 및 지방 미자립대책 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하는 방안도 있다.

4) 신도시 등 거점 교회를 세워 합당한 목회자 파송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때에는 여러 가지로 검증된 목회자를 공개적으로 추천받아 선발하며 파송받은 목회자는 10년간은 이동 없이 목회할 것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5) 감리교세가 약한 삼남연회 및 호남선교연회 지역에 집중적인 개척이 요구된다. 생활비 및 임대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감리교회의 역량을 쏟아 감리교회 이미지 제고와 더불어 감리교회 교세 확장에 효과적이다.

6) 농어촌 목회자 자녀들을 위한 기숙사를 활용하여 농어촌 목회자들이 목회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이 자료집에 포함되지 않은 많은 교회들이 나름대로 미자립 교회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지원들이 교단 차원에서 체계화되어 연합하여 추진할 때 보다 더 큰 상승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7) 미자립교회 현장의 소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연회가 주도하는 비전교회 협약과 인적 물적 지원 사업들의 지속과 함께 선발의 공정성에 대한 요구이다. 단순히 연회에서 감리사에 위임하여 일괄 선정하는 것보다는 지방 소속 비전교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와 제출한 통계표를 바탕으로 지방 임원들의 협의를 거쳐 선정하는 방식이 더욱 공정하다고 본다.

② 미자립교회를 섬기는 평신도 운동으로서, 어떤 지원보다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비전교회 목회자들의 목회 방향과 구체적 사업들을 목회자와 평신도 모두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만든다. 평신도들을 일시적/지속적으로 파송할 수 있는 교회는 그들을 훈련·파송하며, 지방은 이를 지원하고 격려한다. 같은 지방 또는 인접한 지방에 있는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을 도와 지역 선교에 참여할 평신도를 훈련하고 파송하는 모범 사례들을 만들어 가기를 요구하고 있다.

③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을 위한 생활비 바우처(voucher) 제도이다. 금융권과 협약을 통해 감리교 목회자 가정이 시장에서 생필품을 구입해 사용할 수 있는 일정 금액의 카드 바우처를 만들어 지원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목회자의 최저 생계비 보장은 당장 지속 가능한 자원 마련의 어려움과 논란의 여지

가 많지만, 많은 적든 감리회에 소속감도 주고,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의 생활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

④ 개척-미자립 목회자들의 자발적 책임목회서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추가 지원만을 요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를 개척하거나 미자립 교회에 부임한 새 담임자의 경우 연회와 지방의 지원과 훈련을 약속하고 시행하기에 앞서 최소 5년, 10년 이상의-자발적이지만 강제력을 갖는-책임목회서약과 그에 따른 인준이 요구된다. 감리회 전체로 볼 때, 당장에는 정체와 혼란이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목회자 수급조절과 지역선교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지속적으로 지역선교를 위해 헌신할 목회자를 선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실제적인 지표가 될 것이다.

⑤ 교단 차원의 지원이 가능하려면, 무엇보다 사업을 위한 재정 확보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간혹 미자립교회를 위해 단체나 개인이 일정 금액을 지원해서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더러 있었지만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상시적인 재정 수입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미자립교회 문제는 한국교회 전체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 속에서 개 교회들이 조금씩 힘을 모아 줄 것을, 그래서 미자립교회를 위한 일정액의 부담금을 거두어 사용하기가 요구된다.



미자립교회 성장을 위한 정책자료집

발행인 박영근

편집인 서의영

집필 황병배 김영호 계인 신현희 최재훈

발행일 2017년 12월 28일

발행처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

03186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감리회관 16층

www.kmcmission.or.kr

비매품